

2011~2012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S U N G S H I N
U N I V E R S I T Y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UNIVERSITY

목 차

인문계열

2012학년도

1교시

- 논술문제	4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8
- 평가기준표	10
- 학생답안	13

2교시

- 논술문제	18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21
- 평가기준표	23
- 학생답안	26

3교시

- 논술문제	32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35
- 평가기준표	39
- 학생답안	41

2011학년도

1교시

- 논술문제	46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51
- 평가기준표	53

2교시

- 논술문제	56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60
- 평가기준표	63

3교시

- 논술문제	68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72
- 평가기준표	75

자연계열

2012학년도

- 논술문제	78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82
- 평가기준표	86
- 학생답안	89

2011학년도

- 논술문제	94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98
- 평가기준표	101

2012학년도
인문계열 1교시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 학생답안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문제(1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와 <나>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분배’에 대한 주장을 설명한 글입니다. 아래 글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분배의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가>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재화인 기본재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기본재 충족의 원칙이라 부른다. 여기서의 기본재는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의료, 교육 및 교통 등으로 구성된다. 즉, 기본재의 충족이란 경제적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인권의 충족을 의미한다. 물론 기본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만큼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 중에는 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생산에 대한 기여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실업자 등과 같이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이유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사회 형성에 찬성할 때는 사회의 형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 생활을 보장받기 원할 것이다. 밀(Mill)의 말과 같이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게도 의식주를 주면서, 죄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의식주를 주지 않고 죽어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원칙은 사회의 생산물 분배는 공공복지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는 사회의 일부에 절대빈곤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정 계층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은 인정받기 힘들다. 기본재 공급이 최우선이므로 지나친 사치와 향락에 사용되는 돈은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됨이 옳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모든 불평등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 한국의 분배 상황은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양극화는 단순히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저해하여, 결국 범죄율 증가, 가정의 해체, 폭동과 같은 사회적 불안감 고조 등 다양한 사회적 위협과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수단이 소득보장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을 생산이 아닌 소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가져오는 이차적인 생산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지 못한 결과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한다. 둘째, 사회복지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셋째,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또한 사회복지를 경제적 ‘부담’ 혹은 반생산적인 요소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가 인적자본을 강화시켜 주는 투자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아동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에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적자본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박지영 외,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와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에서 발췌·수정-

〈나〉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기여도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근면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도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고 말하였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베짖이와 개미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생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하면 무위도식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각자 자기 권리와 책임 하에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립심이다. 자기와 가족의 생계는 국가나 친척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행동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어 낸 성과를 자신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독립심과 자립심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동력이 된다. 개인들로 하여금 타인이나 국가의 지원을 바라지 않게 하고, 자립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독립심과 자립심은 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독립심과 자립심이 있어야 국민들이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이다. 반면 독립심과 자립심이 없으면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지원을 바라는 의타심이 생기고, 의타심은 나태와 불만, 분쟁을 낳기 쉽다.

현재 우리 사회에 크게 결여된 것 중 하나가 자립심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예술협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학교장, 노동자, 농민, 식당 주인, 화물차 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언론은 물론 지식인들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무엇하고 있느냐고 정부를 비난하고, 또 정부는 모든 문제가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함이 원칙이다.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신에게 무료로 달라는 것이므로, 다른 국민들의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냥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의타심을 버려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에서 발췌·수정-

〈다〉

영국의 축구산업은 노동자들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입장료는 구단의 운영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를 통해 구단 운영비와 선수들의 임금이 충당되었다. 정부는 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원 부담을 낮추고 구단 간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선수들의 임금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이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축구리그에서 발생하는 구단의 수익을 리그에서 공유하도록 하여 리그에 속한 모든 구단들이 운영되는데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축구 리그는 유럽의 평범한 리그 중 하나일 뿐이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최고의 리그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후반 영국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정부는 더 이상 구단을 지원하기 어려워졌다. 각 구단과 선수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생방법을 찾은 결과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축구 리그, 즉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를 탄생시켰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구단의 수익을 리그에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적자 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사라졌다. 축구경기의 TV 중계를 시작하였으며, 중계료 수익은 구단의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각 구단은 축구장 스폰서와 별도의 광고 계약을 맺었고, 이는 곧 구단의 수익 창출로 연결되었다.

선수들의 연봉이나 이적 관련 제한도 리그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선수들은 능력에 따라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구단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즉, 우수한 성적을 내고 구단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단들도 선수들에 대한 연봉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구단은 스타급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리그 상위권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상위권 성적 → 많은 수익 → 우수 선수 영입 → 상위권 성적' 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졌다.

또한 2부 리그를 운영하여 매년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적이 최하위인 구단을 2부 리그로 강등시키고, 2부 리그의 1위 구단을 프리미어 리그로 편입시켰다. 2부 리그로 강등된 구단은 TV 중계료나 광고료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며, 선수시장의 높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구단 내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상위권 구단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다. 결국 재정적으로나 선수운영 측면에서나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구단과 선수들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프리미어 리그의 경쟁시스템으로 인하여, 선수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기량향상에 더욱 노력하였고, 구단들도 리그에서 좋은 성적과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경쟁시스템은 영국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켰고, 오늘날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고 수준 높은 축구리그로 여겨지고 있다.

-마르셀, 『신자유주의와 스포츠 문화 변동 : 영국 축구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발췌·수정-

<라>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은 1999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2000년 말에는 112.6%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자가 점유율은 무려 92%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내 집'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 비결은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공공주택 정책 때문이다. 공공주택이란 주택개발청이 공급하는 '자가소유형 분양주택'을 의미하며, 이 정책의 목표는 '주택의 자가소유 촉진'이다. 따라서 나라 전체의 주택 재고 중, 주택개발청을 통해 국가가 직접 건설한 공공주택의 비율이 82%에 달하고, 나머지 18%가 민간에 의하여 공급된다. 다음은 싱가포르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이다.

싱가포르에 사는 부부인 찬과 완은 2009년 3월에 분가하게 되었다. 민간 사업자가 지은 '콘도'가 시설과 환경 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공공주택과의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아직은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이들 부부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분양한 공공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했다. 시민들이 주택개발청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정부는 적지 않은 보조를 해준다. 내 집 마련은 내가 아니라 나라가 해주는 셈이다. 찬과 완은 먼저 보조금 자격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보조금은 부자에게는 나오지 않는다. 월수입 기준이 부부합계 8천SGD*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자격을 확인한 이들은 한 달 넘도록 주택개발청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 정보를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주택개발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조건,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찬과 완은 자신들의 상황을 공공주택 구입 조건에 대입해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최상의 주택을 찾을 수 있었다.

사전학습을 끝낸 부부는 시내와 가까운 퀸즈타운을 새 보금자리로 정했다. 출퇴근이 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과도 가깝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판매도 할 수 있다. 신규 분양을 받으려면 신청에서 입주까지 적어도 3년은 걸린다. 이에 비해 재판매 아파트 입주는 주택개발청 산정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프리미엄도 주택개발청 산정가격의 10% 내외 수준에서 정해지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부부는 수차례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방 2개와 화장실 한 개가 있는 21평짜리 아파트였다. 주택개발청이 산정한 이 집의 가격은 29만5천SGD, 프리미엄은 3만5천SGD였다.

찬과 완이 결정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이지만 이 부부에게 주택 구입은 매우 큰 지출임에 틀림없다. 만약 민간주택을 구입했다면 찬과 완 부부의 월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환금이 매달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딸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완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여겼다. 또한 은행은 주택개발청 아파트 구입자를 위해 장기저리 대출을 해준다. 찬과 완 부부는 이 대출 상품을 신청하고 돌아오면서 흐뭇함을 느꼈다. 이들이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딸아이가 계속 유치원을 다닐 수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완이 영양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완의 작은 소망은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하여 넉넉지 않은 남편의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다.

*SGD: 싱가포르 화폐 단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세계금융위기 이후』에서 발췌·수정-

<마>

해설 : 흥부네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흥부는 벼를 가지고 와서 짚신과 돛자리를 만들어서 팔고, 부인은 샴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흥부네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합니다.

흥부 : 애들아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알겠니?

흥부 아이 2,3,4,5 : (큰소리로) 예!

흥부 아이 3 : 언니, 그런데 배고파!

흥부 아이 4 : 나도 정말 배가 고파요...(엄마를 바라보며)

흥부 아이 5 :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흥부 아내: (한숨을 쉬면서) 애들아 지금 먹을 것이 없구나. 조금만 참아보아라

(흥부를 바라보며)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요? 당장 먹을 쌀도 없고 우리 이리다 굶어 죽겠어요...

흥부 : (아내를 위로하며) 옛 말에 '산 입에 거미줄 치랴?' 는 속담이 있지 않소. 내 어디 가서 우선 먹을 양식 이라도 꾸어 보리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애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아라. 알겠지?

흥부 아이 1,2,3,4,5 : (큰 소리로) 예! 어서 다녀오세요.

해설 : 흥부는 하는 수 없이 놀부를 찾아 갔습니다.

흥부 : 형님. 죄송하지만 쌀 조금만 나눠 주시면 안 될까요?

놀부 : 누구? 날 알아? (놀부는 흥부를 모른 척 하며)

흥부 : 형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요.

놀부 : 누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으라고 했냐! 그것도 내 알 바 아니니 당장 나가거라.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 『흥부전』 연극 대본 발췌·수정-

▣ 다음 문제를 읽고,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장·단점을 제시문 <다>와 <라>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놀부의 결정에 대해 흥부와 흥부가 속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여 <나>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놀부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1,000자 내외)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1교시)

출제 의도

이번 인문계(1교시) 수시논술고사는 경제학, 사회복지학, 철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논하는 인간관, 사회관, 바람직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고전문학에서 그린 선조들의 모습과 현 사회에 적용시켜 사회현상 간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제 사회현상을 포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발췌·수정된 제시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 가능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서 고등학생들이 특정 영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주어진 제시문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제시문들은 개인과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분배 원칙’에 관한 상반된 관점, 그러한 관점이 적용된 실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논술평가의 주안점은 ① ‘분배’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관점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② 상기 제시된 관점을 적용하여 ‘분배 원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관성있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등에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에 대한 이해능력,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상반된 관점의 비교를 통한 추론능력과 분석능력,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논리적 서술능력, 상반된 관점을 사회 현상에 적용시켜 보는 응용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한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개인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논의해야 할 ‘분배’에 대한 주장을 정리한 글이다. 제시문 <가>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재화인 기본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기본재 충족의 원칙’을 주장한 글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이룬 인간은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견해다. 또한 이런 기본재의 제공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갈등을 완화시켜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고,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어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나>는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여도의 원칙’을 주장한 글이다. 개인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사회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책임전가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갈등이 완화되어, 결국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다. 또한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가 보장되어야 인간은 자신에게 할당되는 분배 몫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결국 이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논리이다. 두 관점 모두 사회갈등 요소의 제거를 통한 ‘사회통합’과 ‘경제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분배 원칙 가운데 ‘기여도의 원칙(제시문 <나>)’이 적용된 사례로서 영국 축구 산업 성장 과정을 각색한 것이다. 축구구단과 축구선수 모두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기여도의 원칙’에 입각하여 차등 분배받는다. 이 사례로부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분배 원칙에 대한 관계자의 동의와 인정이 영국 축구 산업에서 통용되는 규칙으로 정착하면서 분배에 대한 불만 요소를 제거하여 구성원 통합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축구구단과 축구선수 개인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축구산업 전체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제시문 <라>는 분배 원칙 가운데 ‘기본재 충족의 원칙(제시문 <가>)’이 적용된 사례로서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 주택 보급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본재(주택)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는 집단의 불만, 집을 구매할 사람들과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여유 자금을 자신과 자녀의 능력개발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제시문 <마>는 흥부전 중, 흥부가 가난으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형인 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 요구를 놀부가 거절하는 장면이다.

문제해설

【문제 1】

이 문제는 상반된 두 가지 분배 원칙이 적용된 사례에 비추어 각각의 관점을 취했을 때 각 분배 원칙의 적용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제시문 <가>와 <나>의 분배 원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을 각각 지문에서 찾고, 다른 입장을 취하는 원칙의 제시문에서 단점을 찾아내는 추론 능력이다. 둘째, 제시문 <가>와 <나>의 분배 원칙을 제시문 <다>와 <라>에 대입시켜 사고할 수 있는 응용능력이다. 셋째, 상반된 두 논리를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다.

【문제 2】

『흥부전』의 한 장면으로 기본재(음식)가 충족되지 않은 흥부가 놀부에게 도움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놀부의 결정에 대하여 ‘흥부와 흥부가 속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 추구’라는 견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고 아울러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첫째, 제시문 <가>와 <나>의 분배 원칙 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능력이다. 둘째, 제시문 <가>와 <나>의 분배 원칙이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추론 능력이다. 셋째, 각 분배 원칙을 흥부 및 흥부가 속한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응용능력이다. 넷째,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분배 원칙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을 단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마> 사례에 있는 주요 인물과 상황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논리적 서술 능력이다.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평가기준표(1교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15	* 지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20	* 지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의 체계성, 이해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20	*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
	25	* 이해와 응용이 일치하는가?
	10	*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 <가>와 <나>에서는 공통적으로 1)사회통합과 2)생산성 향상이라는 각 분배원칙의 장점을 제시하나 그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장점
<가>	- (기본재 충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 갈등, 분쟁, 불안감의 해소 → 사회통합 - (기본재 충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 생산성 향상
<나>	- (기여한 만큼 충분히 보상하는 시스템에 대해) 구성원이 인정, 합의 → 사회통합 - (기여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책임감, 자립심(독립심) 향상, 자기 개발 → 생산성 향상

- 각 원칙의 단점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대 원칙의 입장에서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음.

	단점
<가>	- (기여가 고려되지 않은 분배로 인해) 가진자의 불만, 갈등, 분쟁, 불안감 → 사회통합 저해
<나>	- (노력과 상관없는 기본재 충족으로 인해) 책임감 결여, 의타심, 나태 → 생산성 저하 - (기본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못가진자의 불만, 갈등, 분쟁, 불안감 → 사회통합 저해 - (기본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박탈 → 생산성 저하

[문제 1]

- <가>의 원칙은 <라>의 사례에, <나>의 원칙은 <다>의 사례에 적용되어져 있음. (중심어는 밑줄 친 부분임)

(가) 원칙을 (라) 사례에 적용한 경우	
장점	<p>-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수 요소인 주거 문제를 사회복지의 일환인 공공주택 형태로 해결해 줌으로써, 첸과 완 부부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고, 이러한 개개인의 생활 안정은 싱가포르 사회의 불만, 갈등, 불안감, 분쟁을 최소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한다.</p> <p>-사회복지 차원에서 저가로 제공된 공공주택은 첸과 완 가족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아내인 완이 영양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이 가족의 인적 자본은 더욱 강화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p>
단점	<p>-주택청으로부터 주택을 저가에 공급받는 것은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노력에 관계없이 해결됨을 뜻한다. 따라서, 기여가 고려되지 않은 분배는 사회적 불만, 갈등, 불안감, 분쟁으로 이어져 싱가포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p> <p>-노력에 관계없이 복지 혜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첸과 완 부부는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의타적이고 나태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싱가포르 사회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p>
(나) 원칙을 (다) 사례에 적용한 경우	
장점	<p>-좋은 경기 성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프리미어 리그의 운영 시스템이 구성원이 모두 인정하고 합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p> <p>-경기 결과에 따른 차등적 분배는 스스로 노력하여 보상을 받겠다는 책임감을 유발하고 자립심과 독립심을 고취시킨다. 따라서 선수들은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구단도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는 리그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p>
단점	<p>-차등적 분배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하여 2부 리그에 속하게 된 구단이나 선수들은 낮은 보상으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프리미어 리그 구성원간 갈등, 분쟁 및 불안요소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한다.</p> <p>-차등적 분배의 경우 성적이 저조한 구단은 수익감소로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어렵고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든 악순환을 겪게 된다. 즉, 하위 구단은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당하기 쉽고 이는 리그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p>

[문제 2]

- 기여도의 원칙에 장단점을 **홍부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중심어**는 밑줄 친 부분)

	홍부와 사회에 대한 효과
<p>놀부결정의 타당성</p>	<p>- 스스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등적 분배원칙을 홍부와 홍부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합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p> <p>- 기여도 원칙으로 인하여 홍부와 그의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의타심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책임감과 자립심이 향상되어 자기 개발에 노력할 것이므로 홍부와 홍부사회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p>
<p>놀부결정의 문제점</p>	<p>- 홍부는 빈곤계층으로 최소한 생계에 필요한 기본재의 부족은 놀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의 갈등과 분쟁 심화는 홍부와 그의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홍부와 놀부를 비롯한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을 높여, 사회통합을 저해한다.</p> <p>- 홍부와 그의 가족은, 생계문제로 인하여 인적자본 투자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저해된다.</p>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학생답안(1교시)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장·단점을 제시문 <다>와 <라>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시오. (800자 내외)

제	시	문	<	가	>	에	서	는	인	간	에	게	는	최	소	
한	의	기	본	재	가	충	족	되	어	야	하	고	,	그	것	은
공	동	체	의	의	무	라	고	말	한	다	.	따	라	서	능	력
이	부	족	하	거	나	의	사	가	없	는	사	람	에	게	도	
최	소	한	의	분	배	는	이	루	어	져	야	한	다	.	이	
분	배	원	칙	의	장	전	은	인	간	당	게	살	수	있		
는	권	리	보	장	과	양	극	화	해	소	를	동	시	에		
이	를	수	있	다	는	전	이	다	.	빈	곤	충	에	게	투	
자	를	함	으	르	써	미	내	의	인	적	자	본	학	보	도	
가	능	하	다	.	또	한	투	자	를	받	은	사	람	들	에	게
는	재	기	의	희	망	을	준	다	.	그	장	전	은	<		
나	>	의	싱	가	포	르	부	부	사	례	를	통	해	학		
인	할	수	있	다	.	국	가	의	주	택	보	조	를	빠		
듯	한	살	림	의	부	담	을	덜	게	되	었	다	.	아	이	
의	공	부	도	계	속	할	수	있	게	되	었	고	업			
마	는	직	업	을	얻	어	살	의	의	지	도	생	겼	다	.	
이	렇	듯	정	부	보	조	를	통	한	분	배	는	민	주		
주	의	의	기	본	이	념	을	지	키	며	동	시	에	경	제	
성	장	에	도	윤	이	된	다	.	하	지	말	분	배	에	따	
른	단	전	도	존	재	한	다	.	그	것	은	분	배	를	해	
주	는	상	위	층	사	람	들	이	역	차	별	을	느	낄		
수	있	다	는	전	이	다	.	그	리	고	노	력	없	이		
얻	어	진	대	가	르	사	람	들	이	나	태	해	직	수	도	
있	다	.														
<	나	>	에	서	는	노	력	에	비	례	하	는	기	여	도	
의	원	칙	에	따	른	분	배	를	주	장	한	다	.	이	러	

【문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놀부의 결정에 대해 흥부와 흥부가 속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여 <나>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놀부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1,000자 내외)

제	시	문	<	마	>	에	나	타	난	놀	부	의	결	정	
은	노	격	에	따	른	차	등	분	배	에	가	깁	다	.	그
는	쌀	을	얻	으	러	은	흥	부	를	도	타	주	지		
않	고	오	히	려	비	난	하	며	내	쫓	았	다	.		
흥	부	타	그	가	속	한	사	회	의	건	전	한	발		
전	방	향	을	고	려	하	여	<	나	>	의	입	장	에	서
놀	부	의	결	정	을	보	면	타	당	하	다	할	수		
있	다	.	그	이	유	는	첫	째	로	놀	부	의	태	도	는
흥	부	에	게	경	제	적	인	독	립	심	과	자	립	심	을
길	러	죽	수	있	다	.	놀	부	는	흥	부	를	무	조	건
뚝	기	보	다	는	흥	부	가	가	난	하	게	된	이	유	를
들	어	비	판	하	였	다	.	즉	흥	부	가	구	결	하	지
않	고	스	스	로	노	격	하	도	록	의	타	심	을	없	애
고	독	립	심	과	자	립	심	을	신	어	준	태	도	로	도
볼	수	있	다	.	두	번	째	는	결	라	적	으	로	흥	
부	의	능	동	적	인	사	회	참	여	를	도	타	준	다	.
부	의	말	을	듣	고	더	이	상	의	지	할	곳	이		
없	은	을	깨	달	은	흥	부	는	자	기	자	식	을	위	
해	서	나	도	경	제	활	동	에	더	능	동	적	으	로	참
여	하	는	사	람	이	된	다	.	흥	부	타	같	은	처	지
에	놀	인	사	람	들	이	흥	부	처	럼	경	제	활	동	에
능	동	적	으	로	참	여	하	면	더	높	은	경	제	발	전
을	이	룩	할	수	있	다	.	셋	째	로	흥	부	개	인	
의	창	의	격	과	근	면	성	증	진	에	도	도	운	을	
준	다	.	스	스	로	해	결	해	야	할	다	는	깨	달	은
얼	은	흥	부	는	자	기	가	족	의	생	계	를	위	하	
여	창	의	격	을	통	한	일	자	리	생	성	과	함	께	
그	일	에	대	한	성	실	성	이	증	진	된	것	이	다	.

반	면	<	가	>	의	입	장	에	서	보	았	을	때	
노동	의	경	정	은	여	러	문	제	를	초	대	한	다.	
첫	번	째	로	경	제	적	양	극	화	를	촉	진	시	킨
다.	가	진	사	람	이	나	누	지	않	고	혼	자	독	식
하	게	되	면	전	체	적	인	사	회	발	전	은	저	해
된	다.	즉	빈	익	빈	부	익	부	를	신	화	시	켜	최
소	한	의	생	활	도	보	장	받	지	못	하	고	살	아
가	계	된	다.	등	째	로	각	종	사	회	문	제	를	야
기	하	는	나	눈	을	반	지	못	하	고	최	소	한	의
생	계	도	이	어	가	지	못	하	는	상	황	이	오	면
가	족	안	에	불	화	나	갈	등	이	초	대	된	다.	즉
남	의	것	을	탐	하	는	절	도	나	,	불	화	의	경
과	로	나	타	날	수	있	는	이	혼	문	제	등	최	소
한	의	보	장	을	받	지	못	하	여	나	타	날	수	있
는	문	제	들	이	많	다.	마	지	막	으	로	장	기	적
관	전	에	서	보	았	을	때	노	동	격	저	하	를	가
져	오	고	경	제	성	장	의	걸	린	돌	이	된	다.	최
소	한	이	보	장	된	삶	에	서	는	더	많	은	재	산
을	모	으	기	위	한	노	동	이	실	행	되	겠	지	만
,	아	무	것	도	보	장	받	지	못	한	층	부	의	삶
은	하	루	생	계	의	어	려	운	에	갈	혀	적	극	적
인	노	동	활	동	에	참	여	할	수	없	게	된	다.	이
는	노	동	격	의	향	상	을	이	룩	하	지	못	하	여
장	기	적	으	로	경	제	발	전	을	저	하	시	킨	다.

2012학년도
인문계열 2교시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 학생답안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문제(2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국가의 영토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통합되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입니다. 이 중 문화적 차원에서의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된 ‘문화의 탈영토화’ 를 가져왔으며, 각 국가는 이 현상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제시문들은 문화의 세계화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되, 반드시 제시문에 근거를 두고 이의 논지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가 간 유통에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상품의 국제적 유통은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시각에서는 각국의 문화시장 크기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미시경제학적 유통모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보다 월등히 큰 자국 시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며, 제작된 프로그램은 작은 시장을 소유한 국가로 유통된다고 주장된다. 즉, 자국 시장이 큰 나라가 주로 프로그램의 수출국이 된다.

하지만 문화상품의 국제적 유통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수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시청자의 언어, 인종, 문화적 특성과 비교적 유사한 지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타 지역의 프로그램보다 더욱 선호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더 많이 수입하는데, 이는 수용자들이 아시아인인 자신의 삶과 근접하고, 아시아적 규범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수입된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인접국가, 특히 일본에서 제작된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 대만의 수용자는 드라마에 재현된 일본인의 삶의 방식과 자신이 현실적으로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서로 닮았으며, 유사한 근대화 과정으로 인한 친숙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일본 드라마를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국가인 중국에서도 지리·문화적인 요인이 수입드라마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대만 드라마는 신의, 충성, 절제 등의 전통적 가치를 다루어 중국 수용자에게 공감을 얻었으며, 한국의 「사랑이 뭐길래」 도 중국의 전통적 가치에 부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수용자들이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제작국의 프로그램을 보다 더 선호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들은 “프로그램이란 제작국의 문화에 기반을 두므로 그 문화 내에서는 호소력을 지닐 수 있지만 그 밖의 문화권에 노출될 경우 프로그램이 지니는 특정 스타일, 가치, 신념, 행동과 수용자와의 동일시가 어렵기 때문에 매력이 감소된다. 즉 문화적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고 설명한다. 문화상품은 타 문화권에 노출될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가치나 호소력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문화적 할인효과는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세경, 정윤경, 『국내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판매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수정-

〈나〉

문화의 탈영토화 현상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이다. 지구촌의 문화상품 유통은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문화상품의 최대 수출업종인 오락산업 분야를 보면, 주요 5대 오락물 기업 중 4개 회사가 미국기업이며, 나머지 한 회사도 자본 및 사업 차원에서 미국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 미국과 더불어 소수의 서방 국가가 문화상품 국제 유통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UN보고서에서는 ‘사상과 상

품 유통의 비대칭' 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와 산업, 기업의 경제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이 어떤 문화는 뺏어나 가게 하고, 어떤 문화는 시들게 한다” 고 지적했다. 문화상품의 불균형 유통은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차원의 표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가주권의 기본 요소로 간주되는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여 세계 문화를 동질화, 균질화 할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미국문화가 지배적인 세계문화가 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야 키산 쑤쑤, 『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 발췌·수정-

<다>

문화상품의 성공적 세계화는 타 문화의 자본 및 콘텐츠와 상호교류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적인 보편성과 조화시키는 데 달려있다. 비서방 국가의 문화상품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가 텔레노벨라이다. 텔레노벨라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1990년대에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가장 많은 나라에서 방송되는 문화상품이 되었다. 텔레노벨라는 내용면에서는 자국 내 시청자들의 기호와 문화적 감성을 반영하면서, 기획과 제작단계에서는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등장인물 캐스팅, 언어측면에서는 과도한 지역적 색채 배제, 프로그램 촬영 배경의 다양화, 그리고 외국자본과 공동제작을 시행하고 있다. 텔레노벨라의 제작 시스템은 중·남미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의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성훈 『세계화와 텔레노벨라의 변화』에서 발췌·수정-

<라>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 과정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세계화의 긍정적인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계화 과정은 특정 세력의 입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확산되어야 한다. 특수한 정치 및 경제 체계를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에 강요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동시에 정치 및 경제 체계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자유, 박애와 같은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이란 가치는 세계화를 위해 발굴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이 보편적으로 추구할 가치로 인정된다 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강요하거나 혹은 일부 강대국에 의해 모든 국가에 동질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인 가치의 확산과 특수 이해의 조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인권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보편성이 발현된 세계화가 이루어 질 때 세계의 방대한 다수가 세계화에 공감하면서 반기게 될 것이다.

세계화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주요한 사항은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찾아내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하고,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할 보다 세분화된 단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단숨에 보편성을 획득하기보다 서로 수용하기 쉬운 지역 차원에서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점차 세계적인 공감대를 획득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즉, 세계화 과정에서 속도의 요소가 중요하다. 우리는 급속한 세계화가 가져온 문화적 정체성이나 기존 가치에 대한 위협 등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훼손하며 지역정체성의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를 매개로 사고하고 생활했던 방식에 외래의 방식이 급속히 침투하고 수용을 강요했을 때, 미처 대비나 적응을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지역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과 자아상실, 이에 따른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화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나간다면 전통적인 규범, 제도, 문화가 새로운 도전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세계화 과정에서 상호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점진적 방식의 세계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마〉

「난타」에서 보이는 한국의 문화 정체성은 ‘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홍’은 사물놀이의 한국적 가락과 더불어 남녀노소를 막론한 관객이 한 데 어우러져 즐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난타」에는 전통 사물놀이 리듬이 서양의 퍼포먼스와 혼합되어 나타나고 이외에도 한국적 풍광을 보여주는 극의 배경과 전통 혼인식 장면이 서양의 카테일 쇼와 혼재되어 나타난다. 배우들은 Kimchi, Salt, 된장, 고추장 등 영어와 한글이 쓰인 향아리 모양의 악기를 두드린다. 「난타」는 공연시작 전에 한국어와 외국어자막을 통해 관객끼리 인사를 나누고 박수치기와 함성지르기를 유도하며, 관객을 무대 위로 불러 만두쌓기 시합을 시키기도 하고, 한국 전통 결혼식을 연출하는 등 관객과의 일체감을 주면서 흥을 북돋는다. 극의 명칭도 국내와 아시아에서는 「난타」로, 미국 등 서구에서는 「쿠킨 Cookin'」이란 영문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난타는 ‘비(非)언어극’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공연 예술 작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때 직면하게 되는 커다란 장벽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명성황후」는 세계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지만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만을 강조한 스토리라인, 음악, 그리고 의상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결과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얻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세계화를 향한 열망과 그 근거에 내포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논리는 「명성황후」의 제작 의도와도 직·간접적으로 맞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뉴욕 타임즈는 「명성황후」는 민감한 역사적 사건의 재해석과 한국전통의 아름다운 무대의상을 선보이며 스펙터클한 무대창조에는 성공했으나, 뮤지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노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뉴욕에서 공연될 때 무대나 객석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자막을 내보내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서구의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연시간 내내 자막을 보며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서구 관객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함으로써 그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누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준비과정에서도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통 뮤지컬 공연은 최소한 2-3년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이 상례인데 브로드웨이 공연을 위한 준비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는 공연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현택수,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이현정, 「세계화속에서 재현된 명성황후와 이중적 구속」에서 발췌·수정-

【문제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가〉의 논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마〉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사례이다. 〈마〉에 나타난 사례를 〈다〉에서 제시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그리고 「명성황후」를 다시 세계무대에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시문 〈다〉와 〈라〉의 논지에 근거하여 「명성황후」의 바람직한 세계화 방향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00자 내외)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2교시)

출제 의도

이번 인문계 수시논술고사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가운데 문화적 세계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영역에서의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된 문화의 탈영토화 현상을 가져왔다. 각 국가들은 이 현상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이 문화적 세계화 현상에 대해 지문을 통하여 어떻게,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 추세를 우리문화의 세계화 노력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대한 응용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상술하자면 본 고사는 우선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문화영역의 세계화 현상에 대한 논쟁가운데 하나인 '문화적 할인론(cultural discount)'의 지문을 제시하고 그 핵심논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문화적 할인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와 차별화되는 견해인 미국 중심의 문화 획일화론의 논지를 평가하게 하여 학생들의 균형감 있는 분석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에 관한 견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사례를 제시하여, 주어진 지문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한류 세계화 전략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제시문에서 실패한 사례로 제시되었던 「명성황후」의 세계화 추진방향과 실천방안에 대해 논하라고 하였다. 이 문제는 이해력, 논리적인 설득능력, 실제 현상에 대한 응용능력, 창의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문화 영역에서의 세계화 추세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문화적 할인효과가 문화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특정 문화의 전 세계적 지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제시문 <나>의 핵심은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대국의 문화가 지구촌 문화상품을 지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서구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중·남미의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를 설명하면서,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적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시문 <라>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특수성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의 발현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지역이 공감하면서 반길 수 있는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채택을 통해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마>는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성공사례인 「난타」와 실패사례인 「명성황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의 핵심은 한국적인 특수성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보편성을 발현하는가에 성공의 비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제시문 <다>와 <라>에서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문제해설

【문제 1】

1번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이해한 다음 그 논리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의 핵심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상품의 국제적 유통에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문화유사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이 작용한다. 둘째, 수용자들은 문화적 이질감이 높은 지역보다는 문화 유사성이 높은 지역에서 제작된 문화상품을 더 선호한다. 셋째,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문화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은 “문화상품은 제작국의 문화에 바탕을 두며, 해당 문화권을 벗어나면 문화상품의 매력도 및 가치가 감소한다.” 는 문화적 할인효과로 인한 것이다. 넷째, 결과적으로 문화상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 우수하더라도 문화적 할인효과로 인해 특정 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대는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 제시문 <가>에서는 문화적 할인효과가 문화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특정 문화의 전 지구적 지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제시문 <나>의 핵심은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대국의 문화가 지구촌 문화상품을 지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서구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제시문 <가>의 논지는 제시문 <나>에 나타난 서구문화의 전 세계적 지배라는 견해를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논지에 근거하면 문화적 할인효과로 인하여 단일 문화권의 문화상품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다수의 문화권들이 발생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문제 2】

2번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능력과 응용력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제시문 <다>에서 제시한 핵심논지를 이해한 후, <마>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다>와 <라>의 논지를 응용하여 제시문 <마>에서 실패사례로 제시된 「명성황후」의 세계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제시문 <다>의 핵심논지는 다음과 같다. 중남미의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은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의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텔레노벨라」는 내용면에서는 자국내 시청자들의 기호와 문화적 감성을 반영하면서도, 제작과 기획, 언어적 측면에서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성공하였다. 제시문 <다>의 논지에 근거하여 「난타」는 특수성을 보편적 방법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비해 「명성황후」는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제시문 <라>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특수성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의 발현을 통해, 방대한 다수의 사람들과 지역이 공감하면서 반길 수 있는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채택을 통해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와 <라>의 핵심논지를 활용하여 「명성황후」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면 「명성황후」는 우선, 한국적인 특수성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요소의 발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텔레노벨라」의 성공에서 보듯이 제작, 기획, 언어, 내용 등에서 세계의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처럼 지나치게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세계화의 추진 전략은 시간적으로는 너무 조급하지 않게 잘 준비된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공간적으로는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큰 유사 문화권을 중심으로 점차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권역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이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문 <다>의 문화 할인론을 원용한다면 이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평가기준표(2교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15	* 지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20	* 지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의 체계성, 이해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20	*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
	25	* 이해와 응용이 일치하는가?
	10	*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문제 1】

1번 문제는 제시문 <가>의 핵심 논지를 이해한 다음 그 논리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는 것이다. 답안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상품의 유통에 문화적 할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둘째, 제시문 <나>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다. 셋째, 제시문 <가>의 논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1. 제시문 <가>의 논지의 핵심

- 1) 수용자들은 문화적 이질감이 높은 지역보다는 문화 유사성이 높은 지역에서 제작된 문화상품을 더 선호한다.
- 2) 이러한 현상은 문화상품은 제작국의 문화에 바탕을 두며, 해당 문화권을 벗어나면 문화상품의 매력도 및 가치가 감소하는 '문화적 할인효과'로 인한 것이다.
- 3) 문화적 할인효과로 인해 특정 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대는 매우 어렵다.

2. 제시문 <나>의 세계화에 대한 견해

- 1)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대국이 지구촌 문화상품 유통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 2) 문화상품의 불균형 유통으로 인하여 서구문화가 세계 문화를 지배하여 문화적 획일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3. 제시문 <가>에 근거한 <나>에 대한 비판

<나>의 주장은 문화적 요인(문화적 할인효과)이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함으로써 서구 강대국 문화의 세계적 지배로 인한 문화 획일화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문제 2】

2번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다>에서 제시한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제시문 <마>의 예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한국의 「명성황후」를 다시 세계무대에 올린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를 제시문 <다>와 <라>의 논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답안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 <다>에서 언급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문화적 특수성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를 제시하고 공연 「난타」와 「명성황후」를 문화의 특수성을 보편화 시키는데 성공한 사례와 실패의 예로 분석해 낸다. 둘째, 제시문 <라>에 나타난 바람직한 세계화의 두 가지 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셋째, 「명성황후」를 다시 세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에 대해 지문<다>와 <라>의 논지에 근거하여 제시해야 한다.

[전반부 문제]

전반부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다>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세계화하기 위해 보편성을 확보한다’라는 논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차원에서 성공한 사례인 「난타」와 실패한 사례인 「명성황후」의 내용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시문 <다> 논지의 두 가지 특성

- 1) 성공적 세계화를 위해서는 문화적 특수성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 2) 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남미의 ‘텔레노벨라’를 들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획과 제작단계에서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캐스팅, 언어측면에서 과도한 지역적 특성 배제, 프로그램 촬영 배경 다양화, 외국자본과 공동제작 등의 노력을 통해 중·남미라는 지역성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추구했다.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두 사례의 논지

- 1) 「난타」의 예에서는
 - ◆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사례임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논지이다.
 - ◆ 한국적 풍광, 한국의 전통 결혼식 등 한국적 정서를 잘 드러내주었음.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와 어울림의 미학으로 나타나는 한국적 정체성(특수성)인 ‘흥’이라는 요소를 공연과정에서 관객들에게 흥을 불러 넣어 일체감을 확보하는 장치를 확보
 - ◆ ‘흥’이 서구의 연극적 형식과 만나서 보편성을 획득한 성공적인 방법론을 언급하고
 - ◆ 비언어극이란 형식을 통해 언어장벽을 극복 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뮤지컬 「명성황후」의 예에서는
 - ◆ 한국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 ◆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로서는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세계무대에서 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세계의 관객들과 교류하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을 지적
 - ◆ 언어적인 장벽, 사전에 필요한 실무준비 부족
 - ◆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어필할만한 콘텐츠 제시에 실패(예: 기억에 남을 만한 노래)등을 들 수 있다.

후반부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 1. 제시문 <라>에서 주장하는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 1) 세계화과정에서 일부 국가나 권역의 특수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속에 존재하는 인류의 보편성을 발견·확산되는 방향으로 발현되어야 하며

- 2) 문화의 세계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검토노력이 필요하며 점진적·단계적인 수용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2. 「명성황후」를 다시 세계무대에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요구되는 세계화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다>와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2-2)에서 언급한 「명성황후」에 나타난 한국적인 특수성을 보편화 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2) 제시문<라>의 핵심논지를 이해해야 하면서 이를 세계화의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3) <다>에서 언급한 사례를 응용하여, 「명성황후」가 나가야 할 세계화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 방향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처럼 지나치게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고 탈피.
 - ◆ 명성황후에 내재하는 보편적 정서를 발굴해내야 한다. 예를 들면, 서구의 잔다르크처럼 국가적 위기에서 영웅적 역량을 발휘하는 여인상이나 혹은 국난의 시기에 꽃 핀 비련의 사랑 등과 같은 보편적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노력이 나타나야 한다. (혹은 이러한 방향의 논지 제시)
 - ◆ 유사문화 권역내에서 우선적으로 보편성을 확보한 후 세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채택하거나 혹은 시행착오를 감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담은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의 논지인 문화적 할인론(Cultural Discount)을 원용할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는

- ◆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한 텔레노벨라의 성공전략을 「명성황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기획과 제작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되는 장애물 (예를 들어 언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텔레노벨라의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외국 자본과의 공동 제작, 과감한 외국인 캐스팅이 필요하고, 내용면에서도 텔레노벨라의 경우처럼 보편적 정서에 부합한 콘텐츠 개발을 언급해야 한다.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학생답안(2교시)

【문제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가>의 논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시오. (800자 내외)

제	시	문	<	가	>	에	따	르	면	지	급	까	지	는	
문	화	상	품	의	국	제	적	유	통	이	주	르	경	제	적
인	인	에	의	해	경	정	되	었	지	만	문	화	적	인	인
도	국	가	간	문	화	유	통	에	중	요	한	영	향		
을	끼	친	다	.	문	화	상	품	은	자	신	과	성	격	이
다	른	문	화	권	에	노	출	퇴	경	우	그	상	품	의	
이	용	가	치	나	호	소	격	이	감	소	하	는	특	징	을
갖	고	있	다	.	그	대	서	비	슷	한	문	화	권	에	속
한	나	라	들	끼	리	활	발	한	문	화	교	류	를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르	인	해	문	화	적	학	
인	훈	과	가	발	생	하	여	문	화	상	품	의	일	부	인
프	르	그	랜	이	전	세	계	적	으	르	확	산	되	는	것
은	어	접	게	된	다	.									
제	시	문	<	나	>	에	서	는	국	가	의	경	제	적	,
정	치	적	규	모	에	따	라	문	화	상	품	의	유	통	
규	모	도	차	이	가	난	다	고	한	다	.	이	러	한	복
균	형	적	인	문	화	상	품	의	유	통	때	문	에	소	규
모	국	가	들	의	문	화	적	정	체	성	이	사	라	지	게
되	어	결	국	세	계	문	화	가	획	일	하	되	는	것	이
라	고	예	상	하	고	있	다	.							
하	지	만	제	시	문	<	가	>	에	서	는	문	화	상	품
은	특	성	이	비	슷	한	문	화	권	에	속	한	국	가	
들	끼	리	교	류	하	는	특	징	을	갖	고	있	다	고	
보	았	다	.	전	세	계	가	비	슷	하	거	나	등	일	한
문	화	권	을	형	성	하	지	않	는	한	세	계	적	으	르
문	화	가	획	일	하	되	는	일	은	일	어	나	지	않	을

【문제 2】

제시문 <마>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사례이다. <마>에 나타난 사례를 <다>에서 제시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그리고 「명성황후」를 다시 세계무대에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시문 <다>와 <라>의 논지에 근거하여 「명성황후」의 바람직한 세계화 방향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00자 내외)

제	시	문	<	다	>	에	따	르	면	문	화	의	세	계
적	학	산	에	펼	려	한	성	공	요	인	은	각	국	의
특	수	성	과	세	계	적	보	편	성	의	조	화	이	다.
제	시	문	<	마	>	의	나	타	는	특	수	성	과	보
의	조	화	가	잘	이	루	어	진	문	화	의	형	태	이
다.	나	타	는	세	계	화	를	위	해	우	리	나	나	전
통	사	물	놀이	타	서	양	의	퍼	포	먼	스	를	접	목
했	다.	또	한	,	국	가	간	언	어	의	문	제	를	해
결	하	기	위	해	비	언	어	극	으	로	공	연	을	진
했	으	며	공	연	에	직	접	사	용	되	는	소	품	에
영	어	타	한	글	명	칭	을	부	착	해	극	의	이	해
를	도	왔	다.	이	처	럼	각	국	의	특	수	성	을	모
두	반	영	하	여	보	편	성	을	도	추	하	기	도	했
만	전	세	계	인	이	공	유	하	는	보	편	적	행	위
인	인	사	,	박	수	,	함	성	유	도	를	통	해	서
나	타	의	세	계	화	를	이	룬	수	있	었	다.	반	면
뮤	지	컬	'	명	성	황	후	'	는	우	리	나	나	의
성	만	을	중	시	하	여	세	계	화	에	실	패	하	였
'	명	성	황	후	'	는	세	계	인	들	이	공	감	하
편	적	문	화	요	소	를	전	혀	반	영	하	지	않	은
채	한	국	전	통	무	대	의	상	과	노	래	만	을	사
용	했	다.	때	문	에	공	연	을	본	세	계	인	들	은
이	형	적	으	로	나	타	나	한	국	의	리	만	느	꼈
며	내	용	적	으	로	는	공	감	할	수	없	었	다.	또
한	,	모	든	대	사	를	한	국	어	로	사	용	하	고
어	대	사	는	자	막	에	만	설	치	하	여	사	람	들
공	연	내	용	에	집	중	하	는	데	에	한	계	가	있

2012학년도
인문계열 3교시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 학생답안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문제(3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제시문 <가> ~ <마>를 읽고, 제시문에 근거를 두어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상고(上古)시대에는 사람이 적고 금수(禽獸)가 많아 사람들은 금수나 벌레, 뱀과 대항할 수가 없었다. 마침 어느 성인(聖人)이 나타나 나무를 엮어 집을 마련해주자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 가지 해악(害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를 천하의 군주로 삼고 유소씨(有巢氏)라 불렀다. 사람들은 과일이나 조개 같은 것을 먹었으나 냄새가 역하고 몸에 해를 끼쳐 병을 많이 앓았다. 그때 어느 성인이 나타나 부싯돌로 불을 지피어 날것을 익혀 먹도록 해주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를 천하의 군주로 삼고 수인씨(燧人氏)라 불렀다. 중고(中古)시대에는 천하에 홍수가 범람했는데 곤(鯀)과 우(禹)가 물길을 터주었다. 근고(近古)시대에는 걸(桀)과 주(紂)가 폭정을 할 때 탕(湯)과 무(武)가 이를 정벌했다.

만약 하나라 시대에 나무를 엮어 집을 짓거나 부싯돌로 불을 지피는 자가 있었다면 곤과 우에게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은나라, 주나라 시대에 물길을 트는 자가 있었다면 탕과 무에게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요, 순, 우, 탕, 무가 사용했던 원리나 방법을 찬미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이 나타난 성인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토끼가 달려오더니 거기에 부딪쳐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놓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그루터기를 지키며 다른 토끼가 오기를 바랐으나 토끼를 다시 얻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그는 송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선왕(先王)의 정치와 문물로서 현세의 백성을 다스리려는 것은 농부가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로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물에 빠뜨렸다. 그는 황급히 칼을 떨어뜨린 뱃전에 표시를 새겨 놓으며 “여기는 내가 칼을 빠뜨려 놓은 곳이다.” 라 하였다.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그는 표시를 해놓은 뱃전 아래의 물로 들어가 칼을 찾았다. 배는 이미 지나왔고 같은 지나온 물속에 있는데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 『한비자(韓非子)』와 『여씨춘추(呂氏春秋)』의 번역문에서 발췌·수정-

<나>

서양의 무력 도전에 대해 조선 정부 내부에서는 주전(主戰)인가 주화(主和)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었다. 예컨대 화서 이항로는 “지금 국론이 ‘주화’와 ‘주전’의 양끝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양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쪽 사람의 이야기이고, 서양과 화의를 주창하는 것은 저쪽의 이야기입니다. ‘주전’에 바탕을 두면 나라 안에 옛 의상(衣裳)을 지킬 수 있지만, ‘주화’를 따르면 인륜은 금수(禽獸)의 세계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 하였다. 외래의 사상과 문화는 부모와 자식 간이나 임금과 신하 간의 윤리라든가 태극과 같은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재화와 여색만을 중시하는 오랑캐와 같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선비들은 나라와 군주를 지키기 위한 충군애국(忠君愛國)이 아니라, 유교적 예교(禮敎)를 통해 인륜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일관했다. 서학(西學)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교(邪敎)인데, 인륜의 기본적인 부자 간의 도리와 군신 간의 신의를 부정하므로, 그것은 금수의 세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서양에 대한 ‘주화’나 ‘주전’이나 하는 것이 곧 인륜이나 금수냐를 갈음하는 대결의 논리로 변했다. 외래문화의 유입에 대한 위기의식은 서학의 전래로 인한 전통적 가치 질서의 혼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의 외압 성격이 점차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강화된 데다가, 또한 직접적이고 강력해지면서 노골화되었다.

이에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외래문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를 ‘기이한 기술과 지나친 기교로 만든 서양

상품의 유입'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양의 상품은 모두 사치품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상품이 공산품인 반면 우리의 상품은 농산품이므로 서로 통상을 하게 되면 조선 경제가 파쇄해질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천주교의 탄압이나 양요의 격되는 지엽 말단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막는 근본대책은 서양 상품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므로, 중앙에서부터 변경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서양 상품을 배척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인심을 단속하였다.

-강재연 지음, 하우봉 옮김,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이천 년』에서 발췌·수정-

〈다〉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학문의 방법이다. 동복(童僕)이 나보다 한 글자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예의와 염치를 불문하고 그에게 배울 것이다. 남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기보다 나은 자에게 묻지 않는다면 종신토록 아무런 기술도 갖추지 못한 고루한 세계에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꼴이 되리라. 순임금은 농사일을 하고 질그릇을 구우며 물고기를 잡는 일을 직접 자기 몸으로 행하다가 마침내 제왕이 되셨는데, 그 분은 남에게서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자께서는 “나는 젊어서 비천한 사람이었기에 천한 일도 곧잘 한다.” 고 하셨으니, 그 분이 말한 천한 일이란 농사일이나 질그릇을 굽고 물고기를 잡는 일 따위다.

순임금이나 공자는 성인이면서 동시에 기예에도 능하신 분이다. 그렇지만 물건을 접할 때마다 기술을 발휘하고 일이 닦힐 때마다 기구를 제작하자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며 지혜도 모자란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 순임금이나 공자께서 성인이 되신 까닭은 남에게 묻기를 좋아하고 남이 말해준 것을 잘 배운 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 조선 선비들은 세계 한 모퉁이의 구석진 땅에서 편협한 기풍을 지니고 살고 있다. 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중국 대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고, 눈으로는 중국 사람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조선 강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긴 다리의 학과 검은 깃의 까마귀가 제각기 자기 천분(天分)을 지키며 사는 격이며, 우물 안 개구리와 작은 나뭇가지 위 뱀새가 제가 사는 곳이 제일인 양 으스스하며 사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법이란 세련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누추한 생활을 두고 검소한 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른바 네 부류의 백성도 겨우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요,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에 필요한 도구에 이르면 날이 갈수록 곤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학문할 줄 모르는 잘못에 있다.

잘못을 깨달아 제대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중국을 제쳐두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나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중국을 통치하는 자는 오랑캐다. 그들에게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나는 부끄럽다.” 그렇게 말하며 중국의 몇몇한 옛날 제도까지 싸잡아서 천시하여 오랑캐의 것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렇다면 저들이 변발을 하고 옷깃을 외로 여미는 오랑캐라고 하자. 그러나 그들이 접거하고 있는 땅이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 이래로 한(漢)·당(唐)·송(宋)·명(明)이 지배했던 그 넓은 중국이 아니던가? 그 대지 위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은주 삼대 이래 한·당·송·명의 후손들이 아니란 말인가?

법이 훌륭하고 제도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오랑캐라도 찾아가서 스승으로 섬기며 배워야 하거든, 더구나 저들은 규모가 광대하고 사교가 정미(精微)하며 제작이 굉장하고 문장이 빼어나서 여전히 하은주 삼대 이래의 한·당·송·명의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보면 한 치도 나은 점이 없건만 한 줌의 상투를 틀고 천하에 자신을 뽐내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저들의 산천을 비린내 나고 누린내 난다고 헐뜯고, 중국의 백성을 개나 양이라고 욕한다. 저들의 언어를 되놈의 말이라고 증상하고, 중국의 훌륭한 법과 좋은 제도까지 싸잡아서 배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차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서 개선할 것인가?

- 『북학의서문(北學議序文)』의 번역문에서 발췌·수정-

〈라〉

나는 마고자를 입을 때마다 한국 여성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한다. 남자의 의복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사가 마고자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같은 다른 옷보다 더 값진 천을 사용한다. 또 남자 옷에 패물이라면 마고자의 단추다. 마고자는 방한용이 아니요 모양새다. 방한용이라면 덧저고리가 있고 잘덧저고리도 있다. 화려하고 찬란한 무늬가 있는 비단 마고자나 솜 든 것은 촌스럽고, 청초한 겹마고자가 원격(原格)이다. 그러기에 예전에 노인네가 겨울에 소탈하게 방한삼아 입으려면 그 대신에 약식인 반배(反襦)를 입었던 것이다. 마고자는 섶이 알맞게 여며져야 하고, 섶귀가 날렵하고 예뻐야 한다. 섶이 조금만 벌어지거나 조금만 더 여며져도 표가 나고, 섶귀가 조금만 무

더어도 청초한 맛이 사라진다. 깃은 직선에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둥글어도 안 되며, 조금 더 파도 못 쓰고 조금 덜 파도 못 쓴다. 안이 속으로 짝 붙으며 앞뒤가 상그럽게 돌아가야 하니, 깃 하나만 보아도 마고자는 바느질 솜씨를 몹시 타는 까다로운 옷이다.

마고자는 원래 중국의 마괘자(馬褂子)에서 왔다고 한다. 귀한 사람은 호사스러운 비단 마괘자를 입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청마괘자를 걸치고 다녔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고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고자는 마괘자와 비슷하지도 아니한 딴 물건이다. 한복에는 안성맞춤으로 어울리는 옷이지만 중국옷에는 입을 수 없는, 우리의 독특한 옷이다. 그리고 그 마름새나 모양새가 한국 여인의 독특한 안목과 솜씨를 제일 잘 나타내는 옷이다. 그 모양새는 단아하고 아취가 있으며, 그 솜씨는 섬세하고 교묘하다.

우리 여성들은 실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 받아온 안목과 솜씨를 지니고 있던 까닭에 어느 나라 옷을 들여오든지 그 안목과 그 솜씨로 제게 맞는 제옷을 지어냈던 것이다. 만일 우리 여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없었던들 나는 오늘 이 좋은 마고자를 입지 못할 것이다.

문화의 모든 면이 다 이렇다. 전통적인 안목과 전통적인 솜씨가 있으면 누구나 남의 문화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든다 할지라도 이를 고쳐서 새로운 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송자(宋瓷)에서 고려의 비취색이 나오고, 고전(古典) 금석문에서 추사체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굴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남의 문물이 해동에 들어오면 해동 문물로 변했다. 그것은 탕자가 아니라 진주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남의 것이 들어오면 탕자가 될 뿐 아니라, 내 굴까지 탕자가 되고 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윤오영, 『꽃감과 수필』에서 발췌·수정-

<마>

사실 문화적 종속은 정치적 종속이나 군사적 종속보다 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종속과 군사적 종속은 국민들이 스스로 의식하고 저항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실천 활동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독립과 해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화적 종속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침투되는 까닭에 외래문화에 대한 저항 의지가 자리 잡기 어렵다. 때로는 선진문물이라 여겨서 오히려 다투어 받아들이고 익히려 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적 종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적 종속이다. 정치적 종속은 상대적으로 정신적 자주성을 각성시켜 민족문화를 지키려는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지만, 문화적 종속은 오히려 정신적 자주성을 마비시키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며 민족의식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헐리우드 영화, 청바지 문화가 휩쓸고 있다. 이들 문화상품이 세계를 석권하면서 문화의 국경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제3세계의 문화적 독창성을 급격히 훼손하고 문화 다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렸다. 국적 불명의 문화들이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문화의 주권을 잃고 문화제국주의에 종속되는 토착문화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가 획일화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이 상실되는 요인이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단일한 문화권에 속해서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영화를 본다면 몹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가 획일화되면 창조력도 죽고 독창성도 없어서 종단에는 망국으로 치닫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문화의 세기를 맞은 우리는 대외적으로 문화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 이상의 국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수희 편저, 『한류와 21세기 문화 비전』에서 발췌·수정-

【문제 1】

<가>에서 제시하는 논점을 파악하여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외래사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나>와 <다>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2】

<마>에 나타난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를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시오. (1000자 내외)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 의도 및 문제해설(3교시)

출제 의도

이번 수시 논술고사(3교시)는 인문학(문학, 사학, 철학)과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제시하고, 이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분석력 그리고 응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논지와 주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와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논리적 서술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발췌한 제시문 대부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웠거나 혹은 고등학생의 지적 수준에 상응하는 ‘동양고전’ 과 ‘역사서’, ‘문학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문화를 다룬 ‘수필’ 과 ‘문화서’ 에서 뽑은 것으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글이다.

이번 수시 논술(3교시)에서는 외래문화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문화수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어떠한 입장에서 분석·비판하여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 능력이 관건이다.

따라서 제시문에서는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이어 외래문화 수용에 대한 과거 역사적 사실에서의 대립된 두 시각의 관점을 토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의 주체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 드러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동양고전 가운데 하나인 『한비자』와 『여씨춘추』 글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요지는 ‘그 당시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문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게 되어 후세 사람들로 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컨대 아주 옛날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짐승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집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은 성인(聖人)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날것을 그냥 먹어 병으로부터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불을 찾아 익혀먹게 도와준 사람 역시 성인으로 존경받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고시대(中古時代) 홍수와 범람을 막아준 사람도 성인의 이름으로 영원히 존송받게 되었다. 그러나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접어든 하(夏)나라에 이르러 옛 상고시대나 중고시대의 업적을 치적이라 여겨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어지는 고사(故事)의 주제 역시 ‘선왕의 정치와 문물로써 현세의 백성을 다스리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글이다. ‘수주대토’와 ‘각주구검’의 고사성어가 주는 교훈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위 제시문에서 서술된 한비자의 글을 통하여 공통점을 찾는다면 역시 시대의 변모에 따라 사고의 틀도 바뀌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의성(時宜性)과 융통성(融通性)을 가지고 변할 줄 아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백성을 위해 치적(治績)으로 높이 평가받았던 옛 문화라 하더라도 이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관점을 보여준 글이다.

제시문 <나>는 조선후기 외래문화[서양]와 사상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조선정부와 일부 지식인들이 내놓은 견해이며, 그 요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밝히고 있다.

첫째, 서양의 문화는 부모나 군신 또는 자연에 대한 근본원리를 이해함은 부족하고, 재물과 성적(性的)인 것에만

관심을 표명하는 저속한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우리는 예교(禮敎)를 통해 인륜을 지켜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우리 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우국충정의 입장보다 유교적 예교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유교 일존주의나 교조주의적 입장으로 일관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서양의 기이한 기술을 통해 대량생산된 공산품은 소모품이자 사치품이며, 이러한 것들이 조선에 유입되어 서로 통상무역을 하면 농산품이 주를 이루는 조선의 경제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하에 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 배척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박지원의 『북학의서문』을 번역한 글로서, 외래문화(중국의 청나라)에 대한 입장과 이를 수용하는 자세에 대하여 밝혀 놓은 글이다.

먼저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라 하여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을 무비판적으로 배척하는 배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직접 가본 경험도 없으면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좌정관천(坐井觀天) 격으로 우리의 것만이 최고인양 여기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사람들은 누추하고 처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로 포장하고 있다. 이에 조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지 못함에도 누구라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방법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의 높고 낮음과 신분의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나은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묻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청나라는 현세의 대국으로서 중심국임을 직시할 때, 우리 조선은 시의성 있고 융통성 있는 자세로 그들의 문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윤오영의 『꽃감과 수필』에서 발췌한 글이다. 중국의 마패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적 안목과 솜씨를 바탕으로 창조적 변형을 거쳐 마고자가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외래문화가 밀려든다 할지라도 이를 자국민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문화변형 과정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외래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가 혼합되기도 하며, 우리 고유의 것을 잃어버려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김수희(편저)의 『한류와 21세기 문화 비전』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글로, 외래문화 수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종속의 위험성을 지적한 글이다. 글로벌 시대에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타 문화에 동화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고 문화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종속은 정치적 종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 종속과 군사적 종속은 이를 거부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불러 일으켜 저항과 해방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종속되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고 민족의식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국가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토착문화를 위협하고 문화적 독창성을 훼손하여 문화 획일화 현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문화주권을 지니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가치 이상의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해설

【문제 1】

문제1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시문 <가>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래문화와 사상의 수용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는 <나>와 <다>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의 논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옛것만을 고집하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므로, 훌륭한 옛 문화라도 시대가 변하면 융통성 있게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외래사상과 문화 수용을 부정하는 입장의 글이다. 특히 외래 물질문화 유입은 정신문화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 도덕 윤리의 예교의식마저 상실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외래사상과 문화가 유입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논점을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다.

첫째, 정신문화적 측면 : 외래문화가 유입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자주의식이 담겨 있다. 또한 충군애국과 같은 강상윤리, 예교 의식이 상실되면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입장보다 유교적 예교만을 강조함으로써 유교 일존주의와 교조주의적 입장으로 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둘째, 물질 경제적 측면 : 서양의 문물이 대량 생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산품으로써 사치품에 해당하며, 우리의 농산물과 경쟁하게 되면 자국의 경제 구조가 피폐해질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즉, 외래의 공산품이 유입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침식당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다>의 입장은 문화 수용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 어린 아이나 노비라도 나보다 아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는 지문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록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인식되어 온 외래 민족의 문화와 사상 중에서도 유용하고 실용적인 문물과 문화가 있으면 불치하문(不恥下問)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문화우월주의에 얽매어 외래문화를 등한시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문제 2】

문제 2는 제시문 <마>에 나타난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 즉 문화적 제국주의의 위험성과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종속의 문제점을 이해하여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라>의 각 입장을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시문 <마>에 나타난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타 문화에 동화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는 문화적 종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침투되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둘째, 문화적 종속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이는 민족의식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특정 국가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문화적 독창성을 훼손한다. 자문화 상실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는 곧 문화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먼저, <나>에서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지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의 관점을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점 - 타 문화의 유입에 맞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외래문화가 유입되더라도 우리의 좋은 문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자산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단점 - 타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주의는 우리 것만을 최고로 아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타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근대화 과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라>는 외래문화가 유입되더라도 변형 과정을 거쳐 우리 문화에 맞게 재창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설명한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를 극복하기 위하여 <라>의 관점을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점 - 외래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 수용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재창조될 수 있다. 외래문화의 창조적 변형 과정이 포함되므로 다른 문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다.
- 단점 - 전통적 안목과 습씨,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외래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혼합되거나, 잘못된 변형으로 인해 ‘굴이 탕자가 되는 것’ 처럼 우리 고유문화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 이전보다도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 창조적 변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맞게 재창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위에서 제시된 내용들처럼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 <라> 입장을 취하였을 경우의 장단점을 서술할 때 수험생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평가기준표(3교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15	* 지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20	* 지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의 체계성, 이해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20	*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
	25	* 이해와 응용이 일치하는가?
	10	*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문제 1】 <가>의 논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나>와 <다>의 입장을 설명

- <가>의 논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옛 문화라도 시대가 변하면 옛 것에 대한 집착과 향수를 버리고 융통성 있게 지금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외래사상과 문화 수용에 대한 <나>의 입장은 정신적인 문화에 대한 관점과 물질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구분된다.
 - 1) 정신적인 문화 측면 - 외래문화가 유입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서양의 것 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유한 정신적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자주의식이 담겨 있다. 충군애국과 같은 강상윤리, 예교 의식이 상실되면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외래사상과 문화 유입에 맞서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입장보다는 유교적 예교만을 강조한 교조주의적 입장으로 일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 2) 물질문화 - 서양의 문물이 대량 생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산품으로써 사치품에 해당하며, 우리의 농산물과 경쟁하게 되면 자국의 경제 구조가 피폐해질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즉, 외래의 공산품이 유입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침식당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 외래사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다>의 입장은 비록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인식되어 온 외래 민족의 문화와 사상이라 하더라도 유용하고 실용적인 문물과 문화가 있으면 불치하문의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우리 문화에만 얽매며 외래문화를 등한시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문제 2】 문화수용의 제문제를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장단점 비교 설명

- 제시문 <마>에 나타난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서술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종속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 문화에 동화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도록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둘째, **문화적 종속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민족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특정 국가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문화적 독창성을 훼손한다.** 자문화 상실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는 곧 문화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 문화적 종속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나>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구조를 지켜나갈 수 있음 -각국의 토착문화를 보호하여 문화적 획일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실정에 맞춰 주체적 변용을 가져옴으로써 정체성 확보가 가능함 -외래문화의 창조적 변형 과정이 포함되므로 다른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더 나은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한 배타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외래문화와 단절될 가능성 있음 -이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화의 교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의식을 역행하는 국수주의적 입장은 외교문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안목과 숨씨,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외래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변형을 일으켜 고유문화의 본질마저 상실할 위험성 있음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 재창조하여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

* 반드시 제시문 <나>, <라>의 입장에 근거하여 장, 단점을 서술해야 함.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학생답안(3교시)

【문제 1】

<가>에서 제시하는 논점을 파악하여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외래사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나>와 <다>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800자 내외)

제	시	문	<	가	>	에	서	는	옛	것	만	을	고	집	하		
다	가	전	혀	밭	전	이	없	는	것	에	대	해	경				
계	한	다	.	용	통	성	없	이	라	거	의	풍	습	만	을		
고	집	하	는	것	은	어	리	석	은	방	법	일	뿐	이	고,		
지	나	간	시	대	에	보	다	더	밭	전	된	모	습	만			
이	수	용	될	뿐	이	다	.	이	는	개	인	에	게	뿐	만		
아	니	나	나	를	통	치	하	는	데	있	어	서	도				
해	당	된	다	.													
이	를	토	대	로	제	시	문	<	나	>	와	<	다	>			
를	북	때	,	두	제	시	문	은	서	호	상	반	되				
는	입	장	인	을	알	수	있	다	.	먼	저	제	시	문			
<	나	>	의	필	자	는	서	양	문	물	의	수	용	이	인		
훈	을	근	수	로	전	략	시	키	는	행	위	나	고	지	적		
하	면	서	이	대	문	화	수	용	에	대	해	폐	쇄	적			
입	장	을	표	명	한	다	.	‘	주	화	’	와	‘	주	전	’	의
대	결	을	‘	인	훈	’	과	‘	근	수	’	의	대	결	로		
귀	결	시	킨	것	이	다	.	이	러	한	관	점	은	서	양	문	
물	의	유	입	이	부	자	간	의	도	리	,	근	신	간	의		
신	의	와	같	은	인	훈	을	파	리	하	고	전	통	적			
가	치	직	서	를	흔	칼	에	빠	뜨	긴	다	는	인	식	이	다	.
때	문	에	조	선	경	제	에	위	기	를	가	져	오	는			
서	양	문	물	을	강	력	히	배	척	하	려	한	것	이	다	.	
반	면	제	시	문	<	다	>	의	필	자	는	이	대	의			
문	화	와	사	상	까	지	도	배	울	수	있	다	는	개			
방	적	인	수	용	태	도	를	보	인	다	.	착	문	의	방	법	
은	오	른	지	더	나	은	것	을	물	고	배	우	는				

【문제 2】

〈마〉에 나타난 문화수용의 제문제(諸問題)를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시오. (1000자 내외)

현	대	사	회	는	정	보	통	신	기	술	이	발	달			
함	에	따	라	세	계	화	티	어	가	는	추	세	이	다	.	
그	런	데	세	계	가	하	나	의	지	구	촌	으	르	서	문	
화	를	공	유	하	고	전	파	함	에	따	라	다	양	한		
문	제	가	발	생	하	게	된	다	.							
첫	번	째	문	제	를	문	화	적	종	속	을	들				
수	있	다	.	문	화	적	종	속	은	국	민	들	을	알	게	
모	르	게	이	래	문	화	에	종	속	시	킨	다	.	이	는	정
치	적	종	속	이	나	군	사	적	종	속	보	다	더	위		
현	한	데	그	이	유	는	자	신	이	그	문	화	에			
종	속	티	고	있	다	는	것	을	인	식	하	지	못	하	기	
때	문	이	다	.	또	한	문	화	사	대	주	의	적	인	태	도
를	가	진	사	상	들	이	이	래	문	화	를	가	감	없		
이	받	아	들	이	고	그	것	에	스	스	를	종	속	티	기	
도	한	다	.	이	러	한	문	화	적	종	속	의	가	장		
큰	문	제	는	자	문	화	를	무	시	하	며	민	족	의	식	
또	한	상	실	하	게	된	다	는	것	이	다	.	다	음	으	르
또	다	른	문	제	는	혁	일	하	된	문	화	이	다	.	문	
화	의	혁	일	하	를	각	국	가	의	고	유	한	문	화		
화	다	양	성	이	서	서	히	상	실	티	어	,	세	계		
어	디	를	가	나	똑	같	은	문	화	를	복	수	있			
게	티	었	다	.	이	러	한	문	제	들	을	해	결	하	기	
위	해	(나)	화	(라)	의	입	장	을	취	할		
수	있	다	.													
우	선	(나)	의	입	장	을	취	할	경	우	이			
래	문	화	를	배	척	하	고	수	용	하	지	않	은	으	르	써
우	리	의	전	통	문	화	를	보	존	하	고	유	지	할	수	
있	다	는	장	전	이	있	다	.	이	를	통	해	전	통	적	

인	가	치	질	서	나	유	교	적	인	예	법	등	이	
흔	간	해	지	거	나	변	동	되	지	않	게	할	수	
있	다	.	한	편	(나)	의	입	장	을	취	할	경
에	는		이	래	문	화	를	수	용	하	되	그	문	화
자	기		나	른	대	를		해	석	하	고	변	형	시
새	로	은		문	화	를		재	창	조	할	수	있	다
장	전	이		있	다	.		이	는	단	순	히	이	래
있	는		그	대	를		수	용	하	는	것	이	아	닌
안	에	서		배	웁	전	을	찾	아		그	것	을	바
를		새	로	은		것	을	만	든	다	는	것	에	의
있	다	.												
	하	지	만		(나)	의	경	우	에	이	래	문
일	적		거	부	함	으	르	서		문	화	의	진	보
며		세	계	르	부	터		고	집	터	수	있	다	는
이		있	다	.		이	르	인	해	다	른	국	가	들
하	춤	게		어	웁	지		못	하	고	상	호	간	의
통	조	차		단	절	되	게	된	다	.	또	한	(나
경	우	에	는		이	래	문	화	를		수	용	할	때
인		자	세	는		중	으	나		이	것	이	지	나
면		문	화		사	대	주	의	르		이	어	질	수
전	에		주	의	해	야		한	다	.	즉		수	용
우	리	의		문	화	가		동	화	될		수	있	다
다	.	따	라	서		(나)		입	장	은	문	화
성	을		지	킬		수	는		있	으	나		세	계
이	될		수		있	는		반	면		(나)	입
은		것	을		창	조	할		수	있	으	나		자
동	화	될		수		있	다	.						

2011학년도
인문계열 1교시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문제(1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늘 사회와 관련을 맺고 살아갑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보는 각도에 따라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 개인적 이익과 공동선, 표현의 자유와 통제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의 제시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제시문들을 읽고 질문에 답하되, 반드시 제시문에 근거를 두고, 제시문의 논지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1〉

자유와 평등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민주 사회에서 개인 간의 상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즉, 자유와 평등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끌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양대 요소로서,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유 민주주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국민 각자가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자유의 폭이 넓을수록 그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또 그 모습 역시 다양해지게 마련이다. 이와 반대로, 자유가 제한될수록 보람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가능성은 그만큼 위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욕구 실현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 실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는 상호 갈등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만을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여 서로 충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 각자가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상호간의 다툼 때문에 실제로는 욕구 실현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경쟁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각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은 사회 구성원, 다시 말해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결코 선별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에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평등이란 기회 균등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유를 한껏 누리되, 그 기회가 균등하여야 함을 뜻한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대립적인 면이 있다. 평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위축되기 마련이고,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타인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등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각 개인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에만 치우치게 되면 방종한 사회가 되고, 자유 없이 평등에만 치우치게 되면 통제와 감시만이 존재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지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이러한 사회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에 앞서 그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 각자가 자유와 평등만을 내세우고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가-2〉

‘공공성(公共性)’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공공정신의 함양을 통해서 증대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 문제에 관심을 지닌 민주 시민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만일 무관심한 시민들이 대다수인 정치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민들의 공공 정신은 개인적 윤리 의식에 덧붙여 사회적 책임 의식을 요구한다. 결국,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민주적 제도만으로 완전하지 않으며, 그 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공정성(公正性)’은 자유와 평등에서 요구하는 것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유리한 조건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롤스(Rawls, J.)의 주장은 공정성의 원리로서 매우 유익하다. 이는 자유주의 이념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이나, 평등주의 이념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억압적 구속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차별 속의 평등을 가능하게 해 준다. 공동체 내의 갈등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의 원칙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중요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나>

한 사회에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선이라 한다. 그렇다면 공동선과 개인적 이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①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②공동선은 개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때 이루어진다는 관점도 있다. 또, ③개인의 이익은 공동선에 참여함으로써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이익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개인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서구의 사회 계약론에 의하면, 시민 사회는 각자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상호 계약을 맺음으로써 형성된다. 그리고 그 기본 정신은 각 개인들의 권리도 자기 자신의 권리와 똑같이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 정신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사상을 토대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권익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존중하는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사익과 공익은 일치한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발췌·수정-

<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아버지(선왕(先王)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다룬다.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의 왕위에 오르나 신들의 분노를 사,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빠진다. 오이디푸스는 신들이 저주를 내린 이유를 신탁을 통해 전해 듣는다. 신탁에 따르면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내기 전에는 신들이 테바이에 대한 저주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탐문과정을 거쳐 마침내 범인이 오이디푸스 자신임이 밝혀지고 그의 속죄로 작품은 끝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며 눈을 찢어 실명하고 나라 밖으로 떠돌면서도 내면의 행복을 얻고, 신들은 약속대로 테바이에 대한 저주를 거두고, 오이디푸스의 조국 테바이는 다시 옛날의 평온을 되찾는다.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자유와 도덕의 일치를 강조하는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오이디푸스 : 친구들이여, 나의 눈을 찢렸소.

이 두 눈을 찢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내가

직접 찢른 것이오.

친구들이여, 무엇을 내가 볼 수 있고

무엇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떤 인사가 내 귀에 반갑게 들릴 수 있겠소?

어서 나를 나라 밖으로 쫓아 내 주시오.

완전히 몰락하고 가장 저주받고
 하늘의 신들에게도 가장 미움 받는 인간인 나를!
 내 눈이 멀쩡하다면 저승에 가서
 아버지와 불쌍한 어머니를 무슨 낫으로 본단 말시오.
 한때는 테바이의 돌도 없이 고귀한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더없이 불쌍한 인간이 되어 버린 내가,
 어찌 바른 눈으로 이 백성들을 볼 수 있겠소?
 어머니와 내가 근친상간의 혈연을 맺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가장 더러운 치욕이로다.
 친구들이여, 나 스스로 왕권을 내놓겠소.
 그대들은 제발 어서 나를 나라 밖 어디에다 숨기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아니면 바다 속에 던져 버리도록 하시오.

합 장 단 : 오오 조국 테바이의 시민들이여, 보시오, 저 분이 오이디푸스요.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음을 알고 스스로 눈을 찢어 실명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왕권을 버리니 신들도 분노를 풀고
 테바이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었소.
 보시오, 오이디푸스가 무서운 고뇌의 풍파에 휩쓸리면서도
 스스로 위대한 결단에 이르니,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인간의 모범이 아니오?
 그의 행복을 어느 시민이 선망의 눈으로 보지 않겠소!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에서 발췌·수정-

<라>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나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유, 즉 표현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이념이 논리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계몽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즉 이성을 가진 인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것이며, 표현이란 인간의 이성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이므로 어떠한 통제없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몽주의의 요지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하려면 표현물을 위한 자유로운 공개시장과 그 시장의 자정기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선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도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통하여 자기교정과정을 거쳐 살아남는다. 표현물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면 서로 다른 전제와 논리를 가진 진술들은 마찰을 빚거나 충돌하고, 전제의 진실성과 논리의 적합성을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전제의 진실성과 논리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점점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진실성과 적합성이 강한 진술들은 영향력을 점점 확보할 것이다.

정치권력은 흔히 두 가지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며 표현물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는 사회치안 유지 즉 사회 구성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분열시킬 수 있는 사상 표현물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는 표현물이나 표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과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도덕과 윤리의 측면이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특정 의견들을 통제하는 행위는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을 제약하는 일이고, 그 결과 시장의 자정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일 뿐이다. 아무리 법으로 동성애나 혼음,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을 통제한다고 하여도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차라리 그러한 표현물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치권력이 적극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호석,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에서 발췌·수정-

〈마-1〉

철이와 영희는 경기도에 사는 부부로 두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영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들은 불임 센터를 찾았었고, 그곳에서는 ‘대리’ 출산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대리모’ 광고를 냈다. 대리모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주는 여자다.

순희는 이 광고에 응한 여성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스물아홉 살이었다. 철이 부부와 순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순희는 철이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 한 뒤에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철이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어머니의 친권을 포기하고, 철이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철이는 순희에게 아이를 넘겨 받으면서 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의료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임신에 성공하여 여자아이를 순산한 순희는 막상 낳고 보니 아이와 떨어질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넘겨줄 수 없다고 버텼고, 철이 부부는 아이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옳겠는가? 일단 법보다 도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자. 우선 계약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철이와 영희가 보기에 거래는 거래라는 것이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들간의 선택의 자유에 의한 사적 거래는 어느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들간의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사고 파는 것이 임신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추구하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임신이라는 사회적 행위는 어머니와 아이의 감정적 유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희와 아이의 유대를 부정하는 계약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임신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2〉

동성혼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근거로 동성혼을 지지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결혼 상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에게만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게이와 레즈비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부다처제나 다부일처제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 국가가 개인의 선택 앞에서 중립을 지키고 개인의 선택은 무엇이든 존중하고자 한다면 어떤 결혼이든 그것은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혼 논쟁의 진짜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결합이 공동체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혼인은 합의한 성인 두 사람의 사적인 약속이라기보다 공적인 인정과 승인이다. 따라서 혼인은 사회제도로서 상대를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인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상에 대한 대단히 공적인 축하인 것이다. 혼인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공동체 구성원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발췌·수정-

▣ 위의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문제 1】

제시문 <가-1>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실현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가-2>의 논지를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나>의 밑줄 친 ①의 관점은 공익과 사익의 불일치 혹은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의 대립을 주장합니다. 이제 제시문 <라>에 나온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응용하여 이 관점을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먼저 제시문 <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의 ‘결단’이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관점들 중 어느 것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어 이를 토대로 <마-1>의 ‘철이 부부’의 행위와 <마-2>의 동성혼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추론하여 설명하시오. (1000자 내외)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1교시)

출제 의도

이번 수시 논술고사는 윤리와 도덕, 문학, 언론학, 철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문을 발췌하여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분석력 그리고 응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발췌한 제시문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의 지적 수준에 상응하며, 사전 지식 혹은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다.

주안점은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논지들을 이해하고 이를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와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글을 설계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에 놓여졌다. 나아가 통합교과형의 출제 원칙에 상응하게 서로 다른 영역의 원리들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모두 글에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늘 사회와 관련을 맺고 살아간다는 점을 밝히며, 개인과 사회는 보는 각도에 따라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 개인적 이익과 공동선, 표현의 자유와 통제 등의 문제를 제기함을 밝혔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크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는 사회의 이익이나 도덕과 대립된다는 관점, 혹은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의 총합이 사회의 도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는 늘 사회의 도덕이나 공동의 선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문들은 모두 이런 관점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수시 논술에서는 1)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의 문제, 2)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가 대립한다는 주장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근거로 비판하는 문제, 3)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실현하려는 오이디푸스의 사례를 근거로, 대리모나 동성혼의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2) 특정한 주장이나 논지를 다양한 통합교과의 영역에 적용하는 능력, 3)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논리적인 글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1>과 <가-2>는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이지만, 인간의 책임을 매개로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적 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식을 가리키고, 이를 통해서 '공공성' 이 확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자유와 평등을 매개하기 위한 또다른 가치는 '공정성' 인데, 이것은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가능케하고, 이것이 결국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매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 『도덕』에서 발췌한 글로, 공동선과 개인적 이익의 관계를 세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 공동선은 개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때 이루어진다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이익은 공동선에 참여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제시문 <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발췌하여 본 문제의 맥락에 맞게 수정한 글이다.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의 진정한 자유란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실명에 이르고 또 왕권을 포기하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신의 분노가 풀리고 조국 테바이가 몰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대목은 개인의 자유나 이익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탁월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김호석)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글로,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더라도 공동체의 질서에 손상을 가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과 사회 자체의 정화기능을 예로 든다.

제시문 <마>는 모두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글로, 대리모와 동성혼을 예로 하여 각각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도덕에 초점을 맞춘, 서로 상충하는 입장들을 보여준다.

문제해설

【문제 1】

1번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문 <가-2>의 핵심 논지를 이해한 다음 그 논리를 가지고 제시문 <가-1>의 내용을 제시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2>의 핵심논지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공공정신의 함양과 공정한 배분원칙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시문 <가-1>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 제시되는 핵심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제시문 <가-1>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평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유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평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 2】

2번 문제는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된다는 관점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옹용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에는 표현의 자유가 전폭적으로 보장되더라도 공익이 손상되지 않는 근거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사회가 갖고 있는 자정기능을 들고 있다. 이를 제시문 <나>의 밑줄 친 ①의 주장을 비판하는 논거로 사용하면, 인간이 지닌 이성적 능력과 사회의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공동선을 훼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제 3】

이 문제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오이디푸스의 행위를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분석해야 하고, 이것이 결국 제시문 <나>에서 개인의 이익은 공동선에 참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함을 밝혀야 한다. 이어 이를 논거로 하여 오이디푸스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의도하는 ‘철이 부부’의 행위와 동성간의 혼인을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제시문을 근거로 추론하여 설명하면 된다.

오이디푸스는 운명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과오를 저지른다. 이러한 행위의 댓가로 테바이의 왕위에 오르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도덕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산다.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자신의 비행으로 인해 공동체 테바이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 있음을 알고, 자신의 눈을 찌르고 왕권을 포기하며 나라바깥으로 떠돌지만, 신은 이를 받아들여 테바이에 대한 분노를 거두고, 테바이는 원래의 평화를 되찾는다.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결단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오이디푸스는 자발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모습을 합창단은 ‘행복하다’고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오이디푸스의 진정한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의 세 번째 관점에 상응한다.

대리모를 통한 임신의 의도하는 ‘철이 부부’의 행위는 아무리 개인간의 사적 거래 혹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유로운 성질을 주장하기 이전에 사회적 행위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원리에 위배된다. 제시문에서 임신의 사회적 행위란 여기에서 임신부와 태아의 감정적 유대를 가리키는데, 순희에게서 아이를 강제로 건네받는 행위는 순희와 아이와의 감정적 유대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간의 결혼 역시 유사한 문제점을 지닌다.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할 경우, 동성혼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은 먼저 그 사회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시문에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아이를 낳아 공동체 구성원의 재생산’ 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둘 경우 동성혼은 이러한 사회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오이디푸스는 대리모제도나 동성혼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평가기준표(1교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15	*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10	* 제시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15	* 제시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의 체계성, 이해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3	15	*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
	20	* 이해와 응용이 일치하는가?
	10	*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문제 1】

1번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문 <가-2>의 핵심 논지를 이해한 다음 그 논리를 가지고 제시문 <가-1>의 내용을 제시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2>의 핵심논지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공공정신의 함양과 공정한 배분원칙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시문 <가-1>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 제시되는 핵심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제시문 <가-1>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평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유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평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 2】

문제 2는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된다는 관점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를 응용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답안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의 기본 전제를 제시문 <라>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둘째,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이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관점을 도출해낸다. 셋째,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여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된다는 관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1.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의 두 가지 기본 전제

첫째,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즉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며, 이성을 가진 인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인간 사

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사상의 자유 경쟁시장의 자정기능의 인정. 각 개인의 표현물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서로 다른 전제와 논리를 가진 진술들이 충돌하고 평가받아 진실되고 적합한 진술은 영향력을 확보하는 대신 이것이 부족한 주장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표현의 자유옹호 입장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관점

이성적 행위인 표현이 자유롭게 유통될 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필요성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옹호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추구과 공동선의 성취는 대립하지 않는다.

3.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은 대립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은 대립된다는 주장은 자유추구의 극대화가 공동선에 기여하게 만드는 매개체인 인간 이성의 역할과 사회의 자정기능을 간과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의 공존가능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제 3】

이 문제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오이디푸스의 행위를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의 관계에서 분석해야 하고, 이어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도 결국은 공동선이라는 범주 안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의도하는 ‘철이 부부’의 행위와 동성간의 혼인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문에서 파악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 (1) 오이디푸스는 운명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과오를 저지른다. 이러한 행위의 댓가로 테바이의 왕위에 오르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도덕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산다.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자신의 비행으로 인해 공동체 테바이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 있음을 알고, 자신의 눈을 찌르고 왕권을 포기하며 나라바깥으로 떠돌지만, 신은 이를 받아들여 테바이에 대한 분노를 거두고, 테바이는 원래의 평화를 되찾는다.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행위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오이디푸스는 자발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고, 이러한 모습을 합창단은 ‘행복하다’고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오이디푸스의 진정한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의 세 번째 관점에 상응한다.
- (2) 대리모를 통한 임신의 의도하는 ‘철이 부부’의 행위는 아무리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혹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유로운 성질을 주장하기 이전에 사회적 행위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원리에 위배된다. 임신의 사회적 행위란 여기에서 임신부와 태아의 감정적 유대를 가리키는데, 순희에게서 아이를 강제로 건네받는 행위는 순희와 아이와의 감정적 유대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동성간의 결혼 역시 유사한 문제점을 지닌다.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할 경우, 동성혼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은 먼저 그 사회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시문에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아이를 낳아 공동체 구성원의 재생산’에서 찾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둘 경우 동성혼은 이러한 사회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오이디푸스는 대리모제도나 동성혼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2011학년도
인문계열 2교시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문제(2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다음 제시문들을 읽고, 제시문에 근거를 두어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법치를 주장한 바 있다. 법이 공평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배리(Brian Barry)는 이러한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평가한다. 배리는 다인종 사회에서 집단 간의 문화적 경계가 생각하는 것만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재’를 반영한다고 전제함으로써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화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또한 그는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규칙 플러스 예외’ (rule-plus-exception)의 형태로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법적용의 일반성과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법치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면 다문화주의가 ‘차이’를 수용하는 공평한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퀘벡인들에게 언어, 교육 등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예로 들며 이를 비판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이 ‘두 계층의 시민’을 낳게 됨을 우려한다. 배리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그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집단에게 국가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 간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분열을 찬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축한다.

배리는 정치제도론의 시각에서 뿐 아니라 재분배의 시각에서도 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인정’ (recognition)에 치중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의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인 재분배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다문화주의는 기회와 자원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법치 훼손의 문제점과 더불어 사회 통합의 기반인 민주적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나〉

킬리카(Will Kymlicka)는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를 유지하려는 바람이 문화적 고립 혹은 사회적 분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임을 역설한다. 오히려 그는 자유주의적 다문화 정책이 사회적 통합을 손상시키기는커녕 사회 내 지배적 집단과 인종적 소수간의 민주적 연대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수인종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집단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양육되는 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킬리카는 대표적인 소수집단의 유형으로 민족적 소수, 원주민, 이민자를 구분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집단유형별 특성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단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추구하는 일련의 규범과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킬리카는 집단유형별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국가-소수집단 관계를 통합적인 관계로 만드는 정책들을 제안한다. 우선 이민자 다문화주의 정책들은 기본적인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동화주의적 민족 건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민자의 자발적인 ‘국가로의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민 혹은 소수 집단 다문화정책은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민자 다문화주의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킬리카는 자치의 인정이 그 자체로 사회적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킨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자치권에 대한 인정으로 인해 소수민족집단과 원주민집단의 성원들은 자신의 자치를 인정한 국가를 정체성집단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 맥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리카는 사회적 연대와 공통 시민권의 약화 등의 이유로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논리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다민족국가에서 공통 시민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국가 내 집단을 수적인 다수와 소수로 갈라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의 지배적 영향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다인종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 〈나〉, 한준성,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김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발췌·수정-

〈다〉

한 사회가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채택하는 정책과 제도 및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해 견지하는 태도는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차별·배제모형은 경제특구나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에서만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유입을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배타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이다. 단일민족을 강조해온 한국과 일본, 독일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터키나 북아프리카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였다.

동화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1960년대 미국의 ‘용광로’ (melting pot) 정책이 이를 대변하며 프랑스도 이러한 모형에 가깝다. 주류 사회가 자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를 문화적 동화의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며, 주류 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의 자녀가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불이익과 편견을 간과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문화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 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둔다. 다문화모형은 흔히 ‘샐러드 볼’ (salad bowl)에 비유되는데 이는 샐러드가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해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이기 때문이다. 다문화모형은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전자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모형이다. 이에 비해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전자의 예로는 1990년대 이후의 미국을, 후자의 예로는 캐나다와 호주를 들 수 있다.

-김은미 외, 『다문화 사회, 한국』에서 발췌·수정-

〈라〉

다문화는 ‘곧 일어날 미래’의 모습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미래’에 가깝다.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에 3,619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73.4%로 줄어들고, 2050년에는 55.1%로 떨어진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노동력 감소는 곧 눈앞에 다가올 현실이다. 인구 증가를 유도할 획기적인 정책이 없는 한, 인구 유입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UN은 “한국이 인구부족으로 2050년까지 1천2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한국 전체 인구에서 5명 중 1명 꼴인 21.3%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170여 개국에 온 외국인이 85만 4천 명이나 된다. 더구나 단기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115만 명은 족히 넘는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10년 후 외국인 수는 인구 1천 명당 36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통계적으로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이 전 국민의 5% 이상이 되어야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달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07년 기준으로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이 미국은 12.5%이며, 캐나다는 20%, 호주는 24%, 독일은 8.8%, 영국은 4.5%이다. 한국의 경우, 비록 수치는 기준에 못 미치지만, 변화 속도가 빨라 체감지수는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민자 또는 그 가족으로 인정받아야 다문화 가족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 자격 소지자는 1만 6천460명, 귀화자는 6만 2천288명으로 총 7만 8천748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가정의 2세에 한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원칙과는 별개로 불법 체류자가 무시 못 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살아있는 시체들' 이다.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에서 발췌·수정-

<마>

2006년 2월 행정자치부는 “한국이 급속히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이해 하에” 부서 행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해 4월에는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과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안’ 의 두 정책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정책 대상 그룹	주요 정책 내용
결혼이민자	간이 국적 취득 허용 한국어·문화교실 운영 등
국내 혼혈인 아동	다문화 교과서 개발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등
국제 혼혈인	부친이 한국인일 경우 한국 국적 취득 허용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고용주에게 다문화교육실시
화교	해당 사항 없음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 정책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화교와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것이다. 최근 영주권 제도의 도입과 외국인의 지방 선거 참정권 부여 등으로 국내 거주 화교의 사회정치적 지위가 향상된 측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에서 한국 내 최대 소수인종인 화교에 대한 정책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제시된 유일한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자주 접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이 전부이다.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에서 발췌·수정-

<바>

시청수도국 잡역부의 딸로 태어난 미셸 오바마는 태어난 순간부터 미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별과 기회, 고난과 극복, 억압과 자유의 이례적인 결합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미국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미국의 이야기다.

미셸은 시카고 시가 흑인 분리정책을 철폐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설립한 휘트니 영 특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인종간의 융화를 공식적으로 장려하고 다양한 인종과 지역의 학생들이 모인 훌륭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그녀는 고급강좌와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소수자 우대조치의 수혜자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프린스턴 대학은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전형을 정당화하는 핵심근거로 ‘다양성 자체가 교육의 목표’ 라는 점을 들었다. 인종과 성별과 출신환경이 각기 다른 학생들을 캠퍼스에 모아놓

고 분자 운동처럼 무작위로 부딪히게 함으로써 서로를 교육하고 다원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는 발상이었다. 대학 졸업 후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로펌의 변호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까지 그녀의 삶은 그녀의 노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그녀가 미국 내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수혜자였음을 보여준다.(리자 먼디, 『미셸 오바마, 담대한 꿈』(안진이 역)에서 발췌, 수정)

▣ 다음 문제를 읽고,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제 1】

〈가〉와 〈나〉의 견해 차이를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시오.(300자 내외)

【문제 2】

〈마〉에 나타난 주요 정책 내용을 참조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 대상 그룹별 정책이 〈다〉의 어떤 모형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와 함께 밝히고, 아울러 〈바〉에서 나타난 미국의 교육 정책이 〈다〉의 어떤 모형에 해당되는지 그 근거와 함께 밝히시오.(600자 내외)

【문제 3】

〈라〉와 〈마〉에 나타난 현황을 고려하여 미래 한국 사회의 통합 방안으로 다문화주의가 적절한지를 〈가〉와 〈나〉의 논의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다〉에서 제시된 세 가지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미래 한국 사회의 통합에 가장 바람직한지 근거를 제시하여 논하시오.(1,000자 내외)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2교시)

출제 의도

본 수시 논술고사(2교시)는 다문화 현상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정책적 대응, 현황과 추세, 외국 사례 등의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분석력 그리고 응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발췌한 지문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의 지적 수준에 상응하며, 사전 지식 혹은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다.

본 논술고사에서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황 파악,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원칙 확립, 원칙의 확립을 위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 등 다층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및 구체적인 문제를 일반적인 원리와 연결시키고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하는 응용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주의가 당연한 처방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어떠한 처방적 성격을 지니며 다문화주의가 갖는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나 다문화 정책 담당자 모두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 본 논술고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 발 나아간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한준성의 『다문화주의 논쟁 : 브라이언 배리와 윌 김리카』에서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시문의 내용은 다문화주의의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는 배리와 김리카의 상반된 주장을 보여준다. 먼저 제시문 <가>는 배리의 다문화주의 비판론을 보여주는데 그는 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회의 통합과 형평성이 최우선이며 다문화주의는 특정 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형평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로 인한 재분배 메커니즘의 결여는 사회통합의 기반인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배리의 다문화주의 비판론의 핵심이다.

제시문 <나>는 김리카의 다문화주의 옹호론을 다루고 있다. 그는 다인종사회에서 각 인종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지배계층과 인종간의 유대감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문화적인 향유권을 보장하고 원주민 혹은 소수집단에게 자치권을 제공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김은미 외의 『다문화사회, 한국』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제시문의 내용은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세 가지로 구분·설명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차별·배제모형,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흡수하려는 동화모형, 여러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모형이 있다.

제시문 <라>는 이현정의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빠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로 한국 역시 다문화 사회가 멀지 않았음을 이 글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직은 외국 출신 인구의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여 다문화 국가로 볼 수 없지만 UN의 보고서도 알려주듯이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획득한 귀화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오경석 외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제시문은 한국의 다양한 다문화정책들을 요약·제시한다. 한국 다문화 정책의 특징으로 결혼이민자와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주 노동자와 화교에 대한 정책은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리자 먼디의 『미셸 오바마, 담대한 꿈』에서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시문은 현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시카고의 흑인 하층민 출신이었지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 사회적으로 주류에 진입할 수 있었던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녀가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60년대 인종차별 철폐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의 일환인 소수인종 우대정책(시카고시의 특수 고등학교 설립, 프린스턴 대학의 소수자 우대 입학정책)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해설

【문제 1】

이 문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가>와 <나>의 견해 차이를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인 ‘평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다인종 사회에서 다문화화를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 간의 장벽을 만들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종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배계층과 소수인종간의 유대감을 촉진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고 소수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다문화정책은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여 사회적인 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문제 2】

이 문제는 본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해 견지하는 3가지 다른 모형을 제시문 <다>를 통하여 파악하고, 제시문 <마>에 나타나는 한국의 주요 정책과 제시문 <바>에 나타나는 미셸이 경험한 미국 교육정책이 <다>의 제시문에서 보이는 3가지 모형 중 어느 모형에 해당되는지를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제시문 <마>를 통하여, 한국은 다문화 대상자에 따라 다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 및 국내혼혈인 아동, 국제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고 있으나, 이주 노동자 및 화교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해당 대상자 그룹별 정책이 어떤 모형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와 같다.

결혼이민자와 국제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동화정책에 해당된다. 그 근거로는, 이들에게는 국적취득을 허용한다든지 한국어(우월 문화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타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다기보다는 우월 문화(한국국적, 한국어)속으로 흡수시키려는 정책이다.

국내 혼혈인 아동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정책에 해당된다. 그 근거로는, 국내혼혈인 아동에게는 그들이 직면하는 가족문화(즉, 다문화)를 인지하게끔 도와주고 이를 습득하도록 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주 노동자 및 화교에 대한 정책은 차별·배제모형에 해당된다. 그 근거는, 이들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바>에서 미국의 정책이 어떤 모형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시에서 흑인 분리정책 철폐 조치의 일환으로 특수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다인종간의 융화를 공식적으로 장려한 것이나 프린스턴 대학에서 소수자 우대조치로 입학할 허가한 것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소수 민족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셸이 수혜를 입은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모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3】

이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가>와 <나>에서 상반된 시각에서 논의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에서 제시된 세 가지 모형 중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도래할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다문화주의를 전반부에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은 크게 다문화모형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채택하는 입장과 동화모형이나 차별·배제모형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채택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답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다문화모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채택할 경우

이 경우 첫째,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둘째,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의 지적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셋째, 다문화주의적 정책의 단계적 실현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첫째 항목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 그중에서도 특히 장점에 대한 정확한 소개,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논의되는 상황과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의 상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가 유효한 까닭에 대한 설명, 동화모형과 차별·배제모형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 등이 상세히 답안 작성 과정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동화주의나 차별·배제모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채택할 경우

이 경우 제시되어야 할 것은 첫째, 앞의 입장과 반대로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이론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논술되어야 하며, 둘째, 동화모형이나 차별·배제모형이 더 바람직한 방안임을 보이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면이 허락한다면 동화모형이나 차별·배제모형의 구체적 실현 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까지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는 유효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한 방향으로는 A)다문화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과, B)다문화주의는 일부 설득력을 가지나 한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음을 보이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전개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전자의 방향에서는 다문화주의 자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한국 상황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반해, 후자의 방향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상세히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다.

이 문제의 경우 수험생이 선택하는 입장에 따라 서술하고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그 점을 유념해서 짜임새 있게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평가기준표(2교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15	*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10	* 제시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15	* 제시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의 체계성, 이해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3	15	*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
	20	* 이해와 응용이 일치하는가?
	10	*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문제 1】

다문화주의에 대해 각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김리카와 배리의 주장을 이해하고,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관계에서 이들의 견해 차이를 논리적으로 요약하는지를 측정함.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

〈가〉 다문화주의 비판론

- 다인종 사회에서 다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인 '평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 간의 소통이 아닌 장벽을 영속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사회의 특정 집단에게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 집단 간의 형평성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과는 상반되는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
- 사회의 다양한 인종을 인정하는 정책에 치중하여 사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인 재분배시스템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 다문화주의로 인한 형평성의 훼손과 재분배 메커니즘의 결여는 사회통합의 기반인 구성원간의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다문화주의 옹호론

- 다인종사회에서 각 인종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지배계층과 소수인종간의 유대감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민자들에게 기본적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고, 원주민 혹은 소수집단에게 자치권을 주는 다문화주의정책은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 국가내 공통 시민권 지향 정책은 수적 우세집단이 소수집단을 지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문제 2】

먼저, 본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해 견지하는 3가지 다른 모형을 제시문 <다>를 통하여 파악함. 제시문 <마>와 <바>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주요정책과 미셸이 경험한 교육 정책이 <다>의 제시문에서 제시한 모형 중 어느 모형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답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

제시문 <다>

- 외국인인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세 가지로 구분됨.
- 첫째, 차별·배제모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외국인을 수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정책임.
- 둘째, 동화모형은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문화를 흡수, 동화시키려는 정책임.
- 셋째, 다문화모형은 여러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제시문 <마>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혼재되어 있음. 다문화 대상자에 따라 다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즉, 결혼이민자 및 국내 혼혈인 아동, 국제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고 있으나, 이주 노동자 및 화교에 대한 정책은 전무함. 해당 대상자 그룹별 정책이 어떤 모형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와 같음.
- 결혼이민자와 국제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동화정책에 해당됨. 근거로는, 이들에게는 국적취득을 허용한다든지 한국어(우월 문화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침. 이런 정책은 타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다기보다는 우월 문화(한국 국적, 한국어)로 흡수시키려는 정책임.
- 국내 혼혈인 아동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정책에 해당됨. 근거로는, 국내 혼혈인 아동에게는 그들이 속한 가족의 고유한 문화(즉, 다문화)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게끔 교육적 지원을 해줌. 이는 타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견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주 노동자 및 화교에 대한 정책은 차별·배제모형에 해당됨. 근거로는, 이들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제시문 <바>

- 미국 시카고 시에서 흑인 분리정책 철폐 조치의 일환으로 특수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다인종간의 융화를 공식적으로 장려한 것이나 프린스턴 대학에서 소수자 우대조치로 입학을 허가한 것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소수 민족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미셸이 수혜를 입은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모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문제 3】

한국의 사회통합에 바람직한 모형에 대한 수험생의 답안은 크게 다문화모형을 채택하는 입장과 동화모형이나 차별·배제모형을 채택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답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1) 다문화모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채택한 답안의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첫째와 둘째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추가적으로 셋째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첫째,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답안에 개진되어 있어야 함.

-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 및 특히 장점에 대한 정확한 소개
- 서구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맥락과 한국 상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까닭 설명
- 예컨대, 한국은 아직 다문화 사회 초기에 머물러 있으며, 단일민족 의식이 강해 캐나다나 미국과 같이 독립성을 갖춘 다양한 소수 문화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 등의 반대쪽 견해에 대해 충실한 대답이 제시되어야 함.
- 동화모형과 차별·배제모형의 한계점 지적

둘째,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의 지적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주어지야 함.

셋째, 다문화주의적 정책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

(2) 동화모형이나 차별·배제모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채택한 답안의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첫째와 둘째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추가적으로 셋째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첫째,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이론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논술되어야 함.

이를 위한 방향으로서는 A)다문화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B)다문화주의는 일부 설득력을 가지나 한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음을 보이는 방향 있을 수 있으며, 각 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A) 다문화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방안

-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 및 문제점을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지적
- 다문화주의를 찬성하는 <나>의 주장에 대한 반박
- 다문화주의를 한국 상황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B) 다문화주의가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음을 강조하는 방안

-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 및 장단점을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지적
-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적
-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다문화주의의 제반 측면들을 정확히 지적

둘째, 동화모형이나 차별·배제모형이 더 바람직한 방안임을 보이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

셋째, 동화모형이나 차별·배제모형의 구체적 실현 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어야 함.

2011학년도
인문계열 3교시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문제(3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다음 제시문을 잘 읽고 제시문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와 <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함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평등’에 대한 노직과 롤즈라는 학자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들이다. 단, ‘정의’나 ‘공정’ 등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제시문의 견해들을 ‘정의’ 또는 ‘공정’으로 구분 없이 부르기로 한다.

<가>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개인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며 특정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떤 행위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되므로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권리의 ‘불가침성’에 근거를 둔 행위제한 중 하나이다. 최소국가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최소국가는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줌으로써... 같은 존엄성을 가진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국가는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최소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의 과정에 의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카렌 레바크 저, 이유선 역, 『정의에 관한 여섯 가지 이론』, 발췌·수정-

노직: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족 배경·성별·지역·연령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특성이나 환경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성취할 기회로부터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균등한 기회가 전제된다면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의해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등의 원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그들이 자기 옆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되므로, 상층부의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상층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사회적 기여를 높이려고 하는 동기를 잃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략) 분배란 재화의 분배를 말하는 것이인데, 재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산물입니다. 생산과정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은 그 기여도에 따라 나뉘어야 합니다.

-박홍순, 『히스토리 대논쟁 정의론&제도』, 발췌·수정-

<나>

롤즈는 첫째, 각 개인은 다른 모든 개인들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폭넓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자유원칙), 둘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할 뿐 아니라 그에 앞서 그러한 재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공정한 기회원칙), 셋째, 정의는 우리에게 ‘차등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장 못사는 이를 가능한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자유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개인이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팀 크레인 외 저, 강유원 외 역, 『철학,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 발췌·수정-

가족의 도움을 받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 유리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기회균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노직이 주장했던 자유시장주의 체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당함은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임의의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임의의 요소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지능이 높거나 학식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등 개인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임의의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격차를 수정하는 방법의 하나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바로 잡는 일, 즉 ‘보장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정한 능력위주의 사회라면 단지 형식적인 기회균등에만 기대지 않고 다른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이를테면 교육기회를 고르게 제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학생과 똑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중략) 능력위주의 개념에 걸맞게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라야 승자도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이러한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 이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적 경쟁으로 파생된 부의 편중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가 다수이므로 이들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잃는다면 사회 전체적 생산성을 낮추게 된다.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발췌·수정-

<다>

조선사회는 사농공상의 차별이 심한 신분사회로서 과거(科擧)시험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었다. 다산은 당시의 인재 선발과 임용에 있어 출신·문벌·지역에 의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서얼·중인·서복인·남인·북인의 차별과 제한을 금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서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면 “서얼의 관직취임은 이미 영조시대부터 부분적으로 단행되어 대간직을 주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러나 그들이 임용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서얼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자는 대간벼슬이 작은 것이니 만큼 정승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신분에 구애되지 않는 능력본위, 기회균등의 임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며 동서남북의 지역적 차별과 정파적 차별도 배제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송낙선, 「다산의 인재등용을 위한 과거제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5호, 발췌·수정-

한국양궁이 20년간 세계 정상을 지켜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선수를 골라내는 양궁만의 독특한 선수 선발방식이 있다는 점이다. 세계대회보다도 어렵다는 국가대표선발전이 그것이다. 양궁인들은 지난 20년간 개선·발전시켜 온 올림픽 대표선발 방식을 가리켜 ‘세계 최고의, 모든 통계와 가능성을 다 점검하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선발방식’이라고 한다. 양궁대표 선발방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스타전 무명이건 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공정한 게임이라는 것, 오랜 기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량을 검증하는 다면평가라는 점, 마지막으로 거르고 걸러진 우수 핵심인재들 안에서도 다시 한 번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 등이다.

-한경비즈니스 2004년 9-458호, 발췌-

<라>

사건의 발단은 1973년과 74년에 연이어 동 대학원에 지원하였던 백인 남자 배키(A. Bakke)라는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인종차별적인 적극적 차별수정정책 때문에 입학전형에서 탈락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어났다. 아래의 <표-1>에 나타난 그의 성적을 보면, 그는 특별입학전형 합격자들보다 뛰어나지만, 대학에서 적극적 차별수정정책에 따른 소수민족우대정책에 따라 100명의 정원 가운데 16명을 소수민족 학생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에 입학이 좌절되었다. 이에 대하여 배키는 대학이 연방헌법 제14조(평등보호조항) 등을 위배하였으니, 자신의 입학 허용을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소하였다.

<표-1> 1973~1974년 평균성적

구분	평점		의과대학 입학자격고사(백분위)				
	학기 평점	전체 평점	언어	양적 결과	과학	일반 정보	
배키(Bakke)	3.44	3.46	96	94	97	72	
일반전형 합격자	1973년	3.51	3.49	81	76	83	69
	1974년	3.36	3.29	69	67	82	72
특별전형 합격자	1973년	2.62	2.88	46	24	35	33
	1974년	2.42	2.62	34	30	37	18

<표-2> 소수민족 출신 합격자수

구분	특별전형합격자				일반전형합격자			
	연도	흑인	멕시코계	아시아인	소계	흑인	멕시코계	아시아인
1970	5	3	0	8	0	0	4	4
1971	4	9	2	15	1	0	8	9
1972	5	6	5	16	0	0	11	11
1973	6	8	2	16	0	2	13	15
1974	6	7	3	16	0	4	5	9

그러나 대학 측도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실상을 보여주는 <표-2>를 제시하며 반격하였다. 1970~74년간 일반전형방식을 통해 합격한 흑인과 멕시코계 지원자들의 합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도 과거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다양한 인종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소수민족출신자만을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방식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염철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적용에 따른 연방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6(1), 발췌·수정-

<마>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하 생략)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A사가 독점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B사가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였으며, 그 이후 C사, D사, E사가 후발업체로 다시 시장에 진입하였다. 즉, A사가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이후 B사가 진입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C사D사E사는 동시에 후발업체로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다섯 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던 중, 1위업체인 A사와 2위업체인 B사가 합병을 하게 되어 두 회사가 합한 시장 점유율은 57%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점유율 50%를 넘는 ‘거대 통신 공룡’의 탄생과, 이들이 가지는 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염려하여,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시장점유율 상위 세 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는 경우 합병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문 기사에서 발췌·수정-

▣ 다음 문제를 읽고,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두 가지 관점에서 ‘평등’의 개념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다>와 <라>의 인재선발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평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비교·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제시문 <마>에 제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에 가한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에 대하여 <나>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가>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1,000자 내외)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3교시)

출제 의도

이번 인문계(3교시) 수시논술고사는 철학, 사회과학, 법학,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과 사고를 이해, 분석,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발췌·수정된 제시문들은 일반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상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현상들로서, 특별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고등학생들이 주어진 제시문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제시문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평등'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 및 현상들이 제시되어 있다. 논술평가의 주안점은 ① 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② 그 관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③ 그러한 차이를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시켜 설명할 수 있는가 등에 맞춰져 있다. 상술하면 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시각을 얼마나 잘 이해하여 실제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현상에 응용·분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평등에 관한 로버트 노직과 존 롤즈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지문 <가>는 노직이 바라보는 평등의 개념으로서 노직이 생각하는 평등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존 롤즈의 평등에 대한 견해인데, 롤즈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그를 실현하는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노직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현실에 적용된 사례로서, 다산 정약용의 인재등용에 관한 철학과 우리나라 양궁국가대표 선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산은 조선시대의 인재선발방식이 출신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양궁국가대표선수 선발과정은 선수의 과거이력에 관계없이 오로지 능력으로만 선발하는 자유로운 경쟁체제로서, 이를 한국 양궁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 원천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산의 인재등용과 양궁국가대표선수 선발과정 모두 '기회의 균등'과 '능력주의'라는 측면에서 모두 노직의 관점에 부합하는 정치·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미국의 실제 사례로서, 한 대학에서 과거 몇 년간 신입생 선발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흑인과 멕시코계 등 특정 소수인종의 지원자들이 일반전형을 통하여 입학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소수인종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특정 인종을 위한 대학 정원을 만들어 입학시키는 '적극적 차별 수정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이 된 미국 대학의 '적극적 차별 수정 조치(예: 불리한 처지에 놓인 학생 대상의 특별전형)'는 존 롤즈의 관점을 담고 있다.

제시문 <마>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이에 준하여 실행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은 시장에서 힘을 가진 사업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상술하면 2001년

이동통신시장의 1위 기업이 2위 기업을 합병할 당시,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어 과도한 힘을 가질 것을 우려하여,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제시문 <마>는 롤즈의 입장에서 보는 평등의 구체적 실현을 보여주는 사회적 제도가 적용된 사례이다. 결국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공정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시각과 공동선의 실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문제해설

【문제 1】

전제 논술문제의 두 가지 축으로서 제시문 <가>의 ‘기회균등’ 과 제시문 <나>의 ‘보장적 평등’ 의 개념을 요약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노직의 견해는 ‘평등’ 이란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주의’ 로 정리된다. 인간의 권리란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은 외적인 것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란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나타난 롤즈의 견해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의하여 형성된 차등의 인정에 있다. 즉,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임의의 요소(출신배경, 성별, 연령, 지능 등)에 따라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도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능력위주의 사회라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 2】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가지 인재선발방식은 모두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즉, 개인의 과거 이력에는 관계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다산의 인재등용 방식은 개인의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개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직이 제안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신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점과 일치한다. 만약 이점을 롤즈의 관점에서 비판한다면 현재의 능력에 도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임의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형식적인 평등에 그치고 실질적인 평등에 이르지 못함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사례인 양궁 국가대표선수 선발방식도 다산의 인재등용방식과 유사하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른 순수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선수 확보가 오늘날 한국 양궁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원천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유로운 경쟁이 실력의 향상과 직결되었듯이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 능력주의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노직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제시문 <라>는 미국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는 과거 입시에서 흑인과 멕시코계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을 만들고,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는 롤즈가 생각하고 있는 보장적 평등의 개념을 적용한 사례이다. 롤즈가 생각하고 있는 평등의 개념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차등의 인정’ 인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한 처지에 놓인 특정 인종에게 차별적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기회의 균등이 주어져도 실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 시 이들에게 이들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평등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노직은 기본 전제로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받아서 안되는 것으로서 기회균등의 보장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롤즈의 견해를 적용한 소수자에 대한 차이 보정 노력이 자칫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롤즈는 현재 여건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통해 실질적 평등이 선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쟁만이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임의의 요소로 인한 차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회의 균등만을 제공한 후 실행한 경쟁에서 얻어진 결과는 공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문제 3】

시장에서의 강자가 지니는 과도한 힘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이 적용된 구체적 사례로서, 이동통신기업의 시장점유율을 50%미만이어야 한다는 인위적 제한의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업들은 설립시기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순서에서도 차이가 있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먼저 확보하고 시장에 대한 경험을 먼저 가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이들이 선점한 경쟁적 위치와 후발 기업의 준비 상황에 격차가 존재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롤즈가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이란 각 개인이 가진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차등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각 기업이 시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이 다르고, 시장에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각 기업이 처한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기업들이 유사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방안으로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롤즈의 주장대로 시장에서의 약자들이 가능한 한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약용할 우려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노직이 주장하는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 존재들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익에 대하여 침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1위인 A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 대한 경험을 얻었으며, 그 경험의 결과로 얻어진 현재의 유리한 상황에 정부가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다분히 A기업이 가진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1위 기업이 시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약화시켜,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평가기준표(3교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15	*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10	* 제시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15	* 제시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의 체계성, 이해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3	15	*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
	20	* 이해와 응용이 일치하는가?
	10	*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문제 1】

- 평가기준 : 제시문 <가>와 <나>는 ‘평등’에 관한 로버트 노직과 존 롤즈의 학설을 정리한 글이다.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개인의 능력본위의 사회와, 차등의 원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가 처한 불리한 위치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보장적 평등이 적용된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소유권과 분배’ 등에 대한 해석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 요약하였는지가 평가의 대상이다.
- 키워드 : 제시문 <가>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누구의 권리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 기초 하에, 출신성분이나 환경 등 기타의 어떤 조건 하에서도 제약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기반이라 설명한다. 즉, 기회의 균등이 확보된다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에 대한 차등적 분배는 인정되어야 한다(또는 공정하다)는 ‘능력주의(업적주의)’를 추구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소득과 부(富)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등의 원칙’과 ‘보장적 평등’을 적용하여 능력 경쟁에 앞서 출발선을 동등하게 제공해야만 경쟁을 통하여 획득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적 평등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전제라는 관점이다.

【문제 2】

- 평가기준 : 제시문 <다>가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전제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무한 경쟁 체제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라면, 제시문 <라>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소수)층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사람들에게 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후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두 제시문을 통하여 인재선발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비교·분석, 그리고 장단점

비교·분석 항목	제시문 <다>	제시문 <라>
	기회의 균등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선발	보장적 평등과 제한적 경쟁을 통한 선발
① 평등에 대한 시각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	-환경적·상황적으로 불리한 제(諸)조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약자(소수)층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
② 선발 기준	-개인의 능력 본위에 따른 무한 경쟁구도 체제 하에서 선발됨	-차별적 위치를 맞추주기 위하여 선발 자격 기준에 그들만을 위한 특혜(배려 조건)를 부여하여 선발함
③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장점)	-오로지 능력 본위로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유리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계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보완적 사회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사회적 가치를 편중되게 소유하고 있는 상층부(부의 편중성)를 제한함으로써 다수를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함 -결국 전체 사회적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
④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단점)	-과도한 경쟁 구도를 양산함으로써,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배려가 없고, 서로에게 배타적이며 관계 의식이 무력해질 우려가 있음 -사회적 약자의 진입을 사실상 배제하는 형식적 평등에 머물러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	-개인의 능력이 일정정도 우수한 상위계층에 속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소수)층을 위한 보장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그들이 역차별 받을 우려의 소지 있음 -이에 따른 상층부의 사회적 기여 및 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 의욕 저하 -하향평준화의 우려

【문제 3】

- 평가기준 : 제시문 <마>는 후발 기업의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지위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등의 원칙’ 과 ‘보장적 평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이러한 법의 적용과 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두 번째 평가기준은 이와 같이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제시문 <가>의 관점을 적용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및 권리에 대한 제한(역차별), 자유로운 경쟁에의 개입을 통한 생산성 저하 가능성 및 부가가치 창출 저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제시문 <마>에 대한 타당성과 비판

평가항목	제시문 <마>의 내용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시장개입
①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법 적용 사례 설명 (타당성 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이 제시문 <나>의 관점(차등의 원칙과 보장적 평등)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이해. -즉, 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출발한 위치가 다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관점을 제시
②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법 적용 사례 비판 (문제점 제기)	-제시문 <마>에 나타난 법률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이 능력에 의한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역차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

2012학년도 자연계열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 학생답안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자연계열 논술문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제시문 1]은 <문제 1>, <문제 2>에 해당하며, [제시문 2]는 <문제 3>, <문제 4>, <문제 5>에 해당합니다. 각 제시문은 일반적인 과학, 수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잘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수식과 논리를 명확히 전개하여 답하시오.

제시문 1

(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는 공해물질의 증가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다.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의 생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생성 등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생산과 사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지열, 태양열, 수력 발전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발전(전기의 생산)은 간헐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2차전지를 포함시킨 총괄적인 시스템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풍력 발전의 경우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하며,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간헐적인 발전이 되지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전지를 사용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발전량 > 사용량) 전기를 저장하고, 반대의 경우는 (발전량 < 사용량) 2차전지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2차전지인 리튬전지(lithium battery)는 휴대용 전자 기기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튬전지의 기본 원리는 리튬 혹은 리튬을 포함하는 화합물에서 리튬의 산화와 환원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전자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방전의 경우, 음극에서 리튬의 산화반응 ($Li \rightarrow Li^+ + e^-$)을 통해 얻어진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흐르게 되고, 이러한 전자들은 양극에서 리튬이온의 환원반응 ($Li^+ + e^- \rightarrow Li$)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들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나 리튬전지 내의 저장된 전기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리튬전지를 충전하게 된다. 이렇게 충전을 하면 양극에 있던 리튬은 음극으로 이동하여 다시 방전할 수 있는 상태, 즉 전기에너지가 저장된 상태가 된다.

(나) 2차전지의 용량은 전지의 내부 구성 물질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인기 있는 테블릿 PC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용량은 $7000\text{mA} \cdot \text{h}$ 이다. 전류는 전자의 흐름으로, 1C (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흐른 양을 1A (암페어)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2차전지에 사용하는 물질이 리튬인 경우, $7000\text{mA} \cdot \text{h}$ 용량의 전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리튬의 질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전지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자.) 1mol (몰)의 리튬은 1mol 의 전자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의 양은 리튬전지의 전하량을 전자 1mol 의 전하량인 96500C/mol (Faraday 상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text{전하량} : Q = 7000\text{mA} \cdot \text{h} \times \frac{1\text{A}}{1000\text{mA}} \times \frac{3600\text{s}}{1\text{h}} = 25200\text{A} \cdot \text{s} \times \frac{1\text{C}}{1\text{A} \cdot \text{s}} = 25200\text{C}$$

$$\text{리튬 및 전자의 몰수} : n(e^-) = n(Li) = \frac{Q}{\text{Faraday 상수}} = \frac{25200\text{C}}{96500\text{C/mol}} = 0.2610\text{mol}$$

$$\text{리튬의 질량} : m(Li) = 0.2610\text{mol} \times 7\text{g/mol} = 1.83\text{g}$$

즉, $7000\text{mA} \cdot \text{h}$ 용량의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 1.83g 의 리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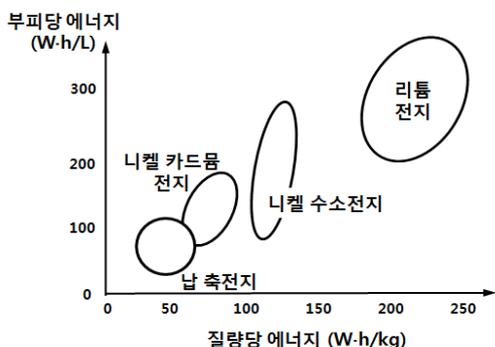
반면, 리튬대신 아연 ($\text{Zn} \rightleftharpoons \text{Zn}^{2+} + 2\text{e}^-$)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아연 및 전자의 몰수} : n(\text{e}^-) = \frac{n(\text{Zn})}{2} = \frac{Q}{2 \times \text{Faraday 상수}} = \frac{25200\text{C}}{2 \times 96500\text{C/mol}} = 0.1305\text{m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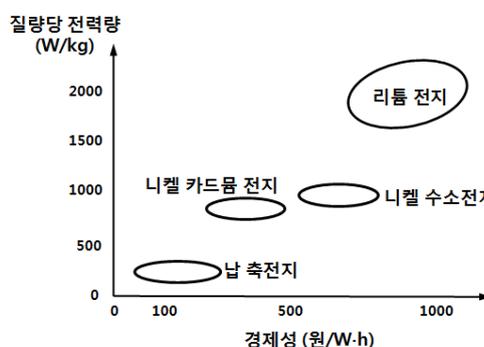
$$\text{아연의 질량} : m(\text{Zn}) = 0.1305\text{mol} \times 65.38\text{g/mol} = 8.54\text{g}$$

그러므로 $7000\text{mA} \cdot \text{h}$ 용량의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 8.54g 의 아연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단위 용량 당 질량은 사용하는 물질마다 다르게 된다. 2차전지의 용량이 작으면 전력 소비가 큰 전기자동차와 같은 기기에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사용 가능한 2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일례로,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전지는 태블릿 PC와는 달리 더 많은 리튬을 포함한 훨씬 더 큰 용량의 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에 적합한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의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 1> 2차전지의 에너지 밀도 비교



<그림 2> 2차전지의 전력 밀도와 경제성 비교

【문제 1】

최근 성능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전지의 용량은 16kWh 이다. 전지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이 용량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리튬의 질량을 구하시오.

(단, 이 리튬전지의 전압은 4.0V 로 일정하다. 전력은 1초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위는 와트(W)이다. $1\text{W} = 1\text{J/s} = 1\text{C} \cdot \text{V/s}$ 임을 참고하시오. ※ 계산의 편의를 위해 Faraday 상수는 96000C/mol 로 계산하시오.)

【문제 2】

제시문에 설명된 내용 및 <그림 1>과 <그림 2>에 근거하여 리튬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리튬전지가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제시문 2

(가) 평행이동과 일차변환

좌표평면 위의 점 $P(x, y)$ 를 $x' = x + a$, $y' = y + b$ 를 만족하는 점 $P'(x', y')$ 로 보내는 함수관계

$$f: (x, y) \rightarrow (x + a, y + b)$$

를 평행이동이라 하고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begin{pmatrix} a \\ b \end{pmatrix}$$

가 된다. 또한 점 $P(x, y)$ 를 $x' = ax + by$, $y' = cx + dy$ 를 만족하는 점 $P'(x', y')$ 로 보내는 함수관계

$$g: (x, y) \rightarrow (ax + by, cx + dy)$$

를 일차변환이라 하고, 이의 행렬 표현은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begin{pmatrix} a & b \\ c & d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가 된다. 따라서 좌표평면의 일차변환은 행렬 $\begin{pmatrix} a & b \\ c & d \end{pmatrix}$ 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 일차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의 예는 x 축에 대한 대칭변환인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y 축에 대한 대칭변환인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y = x$ 로 주어진 직선에 대한 대칭변환인 $\begin{pmatrix} 0 & 1 \\ 1 & 0 \end{pmatrix}$, 그리고 점 $P(x, y)$ 를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θ 만큼 회전하는 회전변환인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등이 있다.

(나) 이차곡선

공간에서 $z^2 = x^2 + y^2$ 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원뿔면이라 한다. 이 원뿔면은 xz 평면 위의 직선 $z = x$ 를 z 축 둘레로 회전하여 얻어지는 회전체이고, 이것의 모양은 두 원뿔의 꼭짓점을 맞붙여 놓은 형태이다.

공간에서 원뿔면과 평면의 교집합으로 주어지는 곡선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원뿔면과 평면 $z = 4$ 와의 교집합은 $4^2 = x^2 + y^2$ 이 되고 이는 반지름이 4인 원이다. 또한 원뿔면과 평면 $y = 1$ 과의 교집합은 $z^2 - x^2 = 1$ 이므로 쌍곡선이 된다.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평면과 원뿔면의 교집합을 살펴보자. 임의의 실수 a 에 대하여 $z = ax + 1$ 로 정의된 평면과 원뿔면의 교집합은 $(ax + 1)^2 = x^2 + y^2$ 으로 주어진다. 이로부터 이차방정식

$$(a^2 - 1)x^2 + 2ax - y^2 + 1 = 0 \quad \text{-----}(1)$$

을 얻고 이 식을 정리하면 $a^2 - 1 = 0$ 일 경우는 $y^2 = 2ax + 1$ 이 되고, $a^2 - 1 \neq 0$ 이면

$$(a^2 - 1) \left(x + \frac{a}{a^2 - 1} \right)^2 - y^2 = \frac{1}{a^2 - 1}$$

이 된다. 따라서 a 의 값에 따라 이 곡선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뿔면과 평면의 교집합으로 나타나는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원뿔곡선 또는 이차곡선이라 한다. 이러한 곡선은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일반적인 이차방정식

$$Ax^2 + Bxy + Cy^2 + Dx + Ey + F = 0 \quad \text{-----}(2)$$

의 해집합으로 주어진다. 위의 식을 행렬을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면

$$(x \ y) \begin{pmatrix} A & B/2 \\ B/2 & C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D \ E)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F = 0 \quad \text{-----}(3)$$

이 된다. 만일 $B \neq 0$ 이면 이 식을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quad \text{-----}(4)$$

로 주어지는 회전변환을 통하여

$$A'x'^2 + C'y'^2 + D'x' + E'y' + F' = 0 \quad \text{-----}(5)$$

형태의 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5)의 A', C', D', E', F' 를 (2)의 A, B, C, D, E, F 로부터 구하는 방법은 다음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4)는

$$(x \ y) = (x' \ y')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quad \text{-----}(6)$$

로 표현할 수 있고 (4)와 (6)을 (3)에 대입하면

$$(x' \ y')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A & B/2 \\ B/2 & C \end{pmatrix}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D \ E)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F = 0 \quad \text{-----}(7)$$

이 된다.

$$\begin{pmatrix} A' & B'/2 \\ B'/2 & C' \end{pmatrix} =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A & B/2 \\ B/2 & C \end{pmatrix}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quad (D' \ E') = (D \ E)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quad F' = F \text{라 하자.}$$

그러면

$$\begin{aligned} &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A & B/2 \\ B/2 & C \end{pmatrix}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 &= \begin{pmatrix} A\cos^2\theta + C\sin^2\theta + B\sin\theta\cos\theta & (C-A)\sin\theta\cos\theta + (B/2)(\cos^2\theta - \sin^2\theta) \\ (C-A)\sin\theta\cos\theta + (B/2)(\cos^2\theta - \sin^2\theta) & A\sin^2\theta + C\cos^2\theta - B\sin\theta\cos\theta \end{pmatrix} \end{aligned}$$

이므로

$$(C-A)\sin 2\theta + B\cos 2\theta = 0 \quad \text{-----}(8)$$

이 되는 θ 를 선택하면 $B' = 0$ 이 된다. 이 때 (7)은

$$(x' \ y') \begin{pmatrix} A' & 0 \\ 0 & C'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D' \ E')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F' = 0$$

가 되고, 이는 (5)가 된다.

【문제 3】

(1)로부터 원뿔면 $z^2 = x^2 + y^2$ 과 평면 $z = ax + 1$ 의 교집합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되는 a 의 범위를 각각 구하시오.

【문제 4】

위 제시문에 나타난 (2)에서 (8)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이차방정식 $2x^2 + y^2 + \sqrt{3}xy - 8 = 0$ 을 (5)의 형태로 변환하고, 변환된 식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리시오. (단, $-\frac{\pi}{4} < \theta \leq \frac{\pi}{4}$ 라 가정한다.)

【문제 5】

정적분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타원 $\frac{x^2}{a^2} + \frac{y^2}{b^2} = 1$ ($a > 0, b > 0, a \neq b$)의 면적이 $ab\pi$ 임을 보이고, 이차곡선

$2x^2 + y^2 + \sqrt{3}xy - 8 = 0$ 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문제 4>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참고: 평행이동이나 회전변환에 의하여 얻어진 도형의 면적은 변환 전 도형의 면적과 같다.)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자연계열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 의도

본교의 2012학년도 수시 1차모집 자연계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주어진 제시문 분석을 통해 수학적 기본 개념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현상 및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본 논술고사의 출제의도이다.

[제시문 1]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2차전지인 리튬전지의 기본 개념 및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지 내부의 미시적인 변화를 구하는 문제와 리튬전지의 특성 및 이에 대한 그래프의 해석을 통해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로 리튬전지가 가장 유력한 이유에 대한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2]는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영역의 주요 주제인 일차변환과 평행이동, 그리고 이차곡선에 대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원뿔면을 정의하고 공간에 놓여있는 원뿔면과 평면의 교집합으로 생기는 곡선으로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차곡선을 회전변환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제하였다. 또한 회전변환이 면적을 보존하는 함수란 사실을 이용해 표준형태가 아닌 타원을 표준형태의 타원으로 변환하여 면적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해설

【문제 1 풀이】

리튬전지에 필요한 리튬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에 해당하는 전자의 몰 수를 먼저 구하고, 생성되는 전자와 반응하는 리튬의 몰 수와의 관계식을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리튬의 질량을 계산한다.

먼저 전력량으로부터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전력, } P = 16k W \cdot h \times \frac{1,000 W \cdot h}{1k W \cdot h} = 16,000 W \cdot h \times \frac{3,600s}{1h} = 57,600,000 W \cdot s$$

$$\text{전하량, } Q = \frac{57,600,000 W \cdot s}{4.0 V} = 14,400,000 C$$

전하량은 생성된 전자의 양에 비례하므로 얻어진 전하량을 Faraday 상수 (전자 1mol의 전하량)로 나누어 주면 생성된 전자의 몰 수를 얻을 수 있다. 리튬 원자 1개는 산화반응을 통해 전자 1개를 생성하므로 생성되는 전자의 몰 수와 반응에 소모되는 리튬의 몰 수는 동일하다. 또한 Faraday 상수를 96,000 C/mol로 가정했으므로 리튬과 전자의 몰 수는 다음과 같다.

$$\text{리튬 및 전자의 몰 수, } n(e^-) = n(Li) = \frac{Q}{\text{Faraday 상수}} = \frac{14,400,000 C}{96,000 C/mol} = 150 mol$$

얻어진 리튬의 몰 수에 제시문의 리튬 원자량 7g/mol을 곱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리튬의 질량을 결정할 수 있다.

$$\text{리튬의 질량, } m(Li) = 150 mol \times 7g/mol = 1,050 g$$

따라서, 16k W · h의 용량을 갖는 리튬전지 (전압 = 4.0 V)에 필요한 리튬의 양은 1,050g (1.050kg)이다.

【문제 2 풀이】

【제시문 1】의 내용과 <그림 1> 및 <그림 2>를 해석하여 리튬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리튬전지가 적합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전지인 리튬전지는 제시문과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위 에너지 당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지의 질량당 에너지를 비교하면 납축전지의 경우 1kg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약 $50 W \cdot h$ 인데 비해 리튬전지는 $200 W \cdot h$ 이상의 높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전지의 부피당 에너지를 비교하면 납축전지의 경우 1L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약 $50 W \cdot h$ 인데 비해 리튬전지는 약 $300 W \cdot h$ 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질량 그리고 단위 부피 당 에너지는 납축전지 등 다른 종류의 2차전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제시문에 보인 리튬과 아연의 비교 결과에서처럼 리튬이 고체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 당 그리고 단위 부피 당 에너지가 다른 2차전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량 당 전력량을 비교하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축전지는 약 $200 W/kg$, 리튬전지는 $1,500 W/kg$ 이상이므로 리튬전지의 질량 당 전력량이 높다. 반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단위 에너지 당 높은 가격을 보인다.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 경제성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원소로 산화환원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질량 당, 단위 부피 당 에너지 밀도가 크다.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리튬전지가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낮더라도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문제 3 풀이】

임의의 실수 a 에 대하여 $z^2 = x^2 + y^2$ 으로 정의된 원뿔면과 $z = ax + 1$ 로 정의된 평면의 교집합은 $(ax + 1)^2 = x^2 + y^2$ 으로 주어진다. 이로부터 이차방정식

$$(a^2 - 1)x^2 + 2ax - y^2 + 1 = 0$$

을 얻고 이 식을 정리하면 $a^2 - 1 = 0$ 일 경우는 $y^2 = 2ax + 1$ 이 되고, $a^2 - 1 \neq 0$ 이면

$$(a^2 - 1)\left(x + \frac{a}{a^2 - 1}\right)^2 - y^2 = \frac{1}{a^2 - 1}$$

이 된다. 그러므로 $z^2 = x^2 + y^2$ 으로 정의된 원뿔면과 $z = ax + 1$ 의 교집합으로 주어지는 곡선의 형태는 다음 4가지로 분류된다.

가) $a^2 - 1 = 0$ 인 경우 ($a = 1$ 또는 $a = -1$):

$y^2 = 2ax + 1$ 이므로 포물선이 된다.

나) $a^2 - 1 \neq 0$ 인 경우:

1) $a^2 - 1 = -1$ 인 경우 ($a = 0$):

$x^2 + y^2 = 1$ 이 되므로 중심이 $(0, 0)$ 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된다. (원의 방정식: $x^2 + y^2 = r^2$)

2) $a^2 - 1 < 0$ 이고 $a^2 - 1 \neq -1$ 인 경우 ($-1 < a < 0$ 또는 $0 < a < 1$):

$$\frac{\left(x - \frac{a}{1 - a^2}\right)^2}{\left(\frac{1}{1 - a^2}\right)^2} + \frac{y^2}{\left(\frac{1}{\sqrt{1 - a^2}}\right)^2} = 1 \text{을 만족하므로 타원이 된다.}$$

(타원의 방정식: $\frac{x^2}{A^2} + \frac{y^2}{B^2} = 1, A > 0, B > 0, A \neq B$)

3) $a^2 - 1 > 0$ 인 경우 ($a > 1$ 또는 $a < -1$):

$$\frac{(x + \frac{a}{a^2 - 1})^2}{(\frac{1}{a^2 - 1})^2} - \frac{y^2}{(\frac{1}{\sqrt{a^2 - 1}})^2} = 1 \text{ 이 되므로 쌍곡선이 된다.}$$

$$(\text{쌍곡선의 방정식: } \frac{x^2}{A^2} - \frac{y^2}{B^2} = \pm 1)$$

따라서 $a=0$ 이면 원, $a=1$ 또는 $a=-1$ 이면 포물선, $-1 < a < 0$ 또는 $0 < a < 1$ 이면 타원, $a > 1$ 또는 $a < -1$ 이면 쌍곡선이 된다.

【문제 4 풀이】

제시문의 내용을 사용하여 $2x^2 + y^2 + \sqrt{3}xy - 8 = 0$ 을 $A'x'^2 + C'y'^2 + D'x' + E'y' + F' = 0$ 의 형태로 변환시키자. $A=2, B=\sqrt{3}, C=1, D=0, E=0, F=-8$ 이므로

$$(C-A)\sin 2\theta + B\cos 2\theta = (1-2)\sin 2\theta + \sqrt{3}\cos 2\theta$$

가 되고, 이 식을 0이 되게 하는 θ 는 $\sqrt{3}\cos 2\theta = \sin 2\theta$ 를 만족한다. 따라서 $\tan 2\theta = \sqrt{3}$ 이 되고,

$$-\frac{\pi}{4} < \theta \leq \frac{\pi}{4} \text{ 라고 가정하였으므로 } \theta = \frac{\pi}{6} \text{ 이고 } \cos \theta = \frac{\sqrt{3}}{2}, \sin \theta = \frac{1}{2} \text{ 이다.}$$

제시문의 계산식으로부터

$$A' = A\cos^2\theta + C\sin^2\theta + B\sin\theta\cos\th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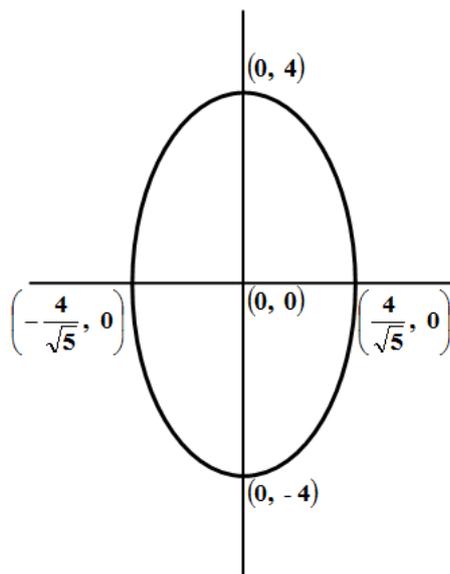
$$B'/2 = (C-A)\sin\theta\cos\theta + (B/2)(\cos^2\theta - \sin^2\theta) = \frac{1}{2}\{(C-A)\sin 2\theta + B\cos 2\theta\},$$

$$C' = A\sin^2\theta + C\cos^2\theta - B\sin\theta\cos\theta$$

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계산하면 $A' = \frac{5}{2}, B' = 0, C' = \frac{1}{2}, D' = 0, E' = 0, F' = -8$ 이 된다. 이로부터

$$\frac{5}{2}x'^2 + \frac{1}{2}y'^2 - 8 = 0 \text{ 을 얻고, 이를 정리하면 일반적인 타원의 방정식 } \frac{(x')^2}{(4/\sqrt{5})^2} + \frac{(y')^2}{4^2} = 1 \text{ 을 얻는다. 이 타원}$$

의 초점은 $F(0, \pm \frac{8}{\sqrt{5}})$, 꼭짓점은 $(\pm \frac{4}{\sqrt{5}}, 0), (0, \pm 4)$ 그리고 장축은 y 축과 일치하고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문제 5 풀이】

타원 $\frac{x^2}{a^2} + \frac{y^2}{b^2} = 1$ ($a > 0, b > 0, a \neq b$)의 면적은 두 곡선 $y = b\sqrt{1 - (\frac{x}{a})^2}$ 과 $y = -b\sqrt{1 - (\frac{x}{a})^2}$ 으로 둘러싸인 면적과 같다. 따라서 타원의 면적은

$$\int_{-a}^a 2b\sqrt{1 - (\frac{x}{a})^2} dx$$

로 주어지고 $t = \frac{x}{a}$ 라 하면 $dx = a dt$ 이므로 $\int_{-1}^1 2ab\sqrt{1 - t^2} dt$ 가 된다.

반지름이 1인 반원의 면적을 구하는 적분식으로부터 $\int_{-1}^1 \sqrt{1 - t^2} dt = \frac{\pi}{2}$ 가 되므로 타원의 면적은 $ab\pi$ 이다.

<문제 4>에서 $2x^2 + y^2 + \sqrt{3}xy - 8 = 0$ 은 회전변환에 의해 $\frac{(x')^2}{(4/\sqrt{5})^2} + \frac{(y')^2}{4^2} = 1$ 로 변환되고 회전변환은 면적

을 보존하므로 주어진 이차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은 $\frac{16\sqrt{5}}{5}\pi$ 이다.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자연계열 평가기준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20	* 제시문에서 타당한 자료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수리적 풀이가 정확한가? *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문제3	20	
문제4	20	
문제5	20	
문제2	20	* 제시문에 근거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전개하였는가?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문제 1】 아래에 제시된 답안에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 ① 전하량의 값을 얻기 위해 전력을 $kW \cdot h$ 단위에서 $W \cdot s$ 단위로 변환
- ② ①에서 얻은 전력을 전압으로 나누어 전하량을 결정
- ③ 전자의 몰 수와 리튬 금속의 몰 수가 동일함을 설명 ($Li \rightarrow Li^+ + e^-$)
- ④ ②에서 얻은 전하량을 Faraday 상수로 나누어 전자 및 리튬의 몰 수를 계산
- ⑤ ④에서 얻은 리튬의 몰 수에 리튬의 원자량을 곱하여 리튬의 질량을 계산

리튬전지에 필요한 리튬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에 해당하는 전자의 몰 수를 먼저 구하고, 생성되는 전자와 반응하는 리튬의 몰 수와의 관계식을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리튬의 질량을 계산한다.

먼저 전력량으로부터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전력, } P = 16kW \cdot h \times \frac{1,000 W \cdot h}{1kW \cdot h} = 16,000 W \cdot h \times \frac{3,600s}{1h} = 57,600,000 W \cdot s \quad \text{----- ①}$$

$$\text{전하량, } Q = \frac{57,600,000 W \cdot s}{4.0 V} = 14,400,000 C \quad \text{----- ②}$$

전하량은 생성된 전자의 양에 비례하므로 얻어진 전하량을 Faraday 상수 (전자 1mol의 전하량)로 나누어 주면 생성된 전자의 몰 수를 얻을 수 있다. 리튬 원자 1개는 산화반응을 통해 전자 1개를 생성하므로 생성되는 전자의 몰 수와 반응에 소모되는 리튬의 몰 수는 동일하다. 또한 Faraday 상수를 $96,000 C/mol$ 로 가정했으므로 리튬과 전자의 몰 수는 다음과 같다.

$$\text{리튬 및 전자의 몰 수, } n(e^-) = n(Li) \quad \text{----- ③}$$

$$n(e^-) = n(Li) = \frac{Q}{\text{Faraday 상수}} = \frac{14,400,000 C}{96,000 C/mol} = 150 mol \quad \text{----- ④}$$

얻어진 리튬의 몰 수에 제시문에 나타난 리튬의 원자량 $7g/mol$ 을 곱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리튬의 질량을 결정할 수 있다.

$$\text{리튬의 질량, } m(Li) = 150 mol \times 7g/mol = 1,050g \quad \text{----- ⑤}$$

따라서, $16kW \cdot h$ 의 용량을 갖는 리튬전지 (전압 = $4.0V$)에 필요한 리튬의 양은 $1,050g(1.050kg)$ 이다.

【문제 2】 아래에 제시된 답안에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 ① 리튬전지가 단위 질량 당 에너지가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높다는 장점
- ② 리튬전지가 단위 부피 당 에너지가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높다는 장점
- ③ 리튬전지가 단위 질량 당 가격이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높다는 단점
- ④ 리튬이 가장 가벼운 금속원소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 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크다는 사실의 언급
- ⑤ 추론 과정의 논리적 전개 및 문장력

[제시문 1]의 내용과 <그림 1> 및 <그림 2>를 해석하여 리튬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 자동차용 전지로 리튬전지가 적합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전지인 리튬전지는 제시문과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위 에너지 당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지의 질량당 에너지를 비교하면 납축전지의 경우 1kg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약 50 W·h인데 비해 리튬전지는 200 W·h 이상의 높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전지의 부피당 에너지를 비교하면 납축전지의 경우 1L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약 50 W·h인데 비해 리튬전지는 약 300 W·h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질량 그리고 단위 부피 당 에너지는 납축전지 등 다른 종류의 2차전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제시문에 보인 리튬과 아연의 비교 결과에서처럼 리튬이 고체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 당 그리고 단위 부피 당 에너지가 다른 2차전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량 당 전력량을 비교하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축전지는 약 200 W/kg, 리튬전지는 1,500 W/kg 이상이므로 리튬전지의 질량 당 전력량이 높다. 반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단위 에너지 당 높은 가격을 보인다.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 경제성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원소로 산화환원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질량 당, 단위 부피 당 에너지 밀도가 크다.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리튬전지가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낮더라도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문제 3】 풀이과정이 다양하게 적혀 있을 수 있으나,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되는 a 의 조건 각각에 점수를 부여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① $a^2 - 1 = 0$ 와 $a^2 - 1 \neq 0$ 인 경우 구분

가) $a^2 - 1 = 0$ 인 경우 ($a = 1$ 또는 $a = -1$):

---② 포물선이 되는 a 의 범위 구하기

$y^2 = 2ax + 1$ 이므로 포물선이 된다.

나) $a^2 - 1 \neq 0$ 인 경우:

---③ 원이 되는 a 의 범위 구하기

1) $a^2 - 1 = -1$ 인 경우 ($a = 0$):

$x^2 + y^2 = 1$ 이 되므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된다.

2) $a^2 - 1 < 0$ 이고 $a^2 - 1 \neq -1$ 인 경우 ($-1 < a < 0$ 또는 $0 < a < 1$): ---④ 타원이 되는 a 의 범위 구하기

$$\frac{(x - \frac{a}{1-a^2})^2}{(\frac{1}{1-a^2})^2} + \frac{y^2}{(\frac{1}{\sqrt{1-a^2}})^2} = 1 \text{을 만족하므로 타원이 된다.}$$

3) $a^2 - 1 > 0$ 인 경우 ($a > 1$ 또는 $a < -1$):

---⑤ 쌍곡선이 되는 범위 구하기

$$\frac{(x + \frac{a}{a^2-1})^2}{(\frac{1}{a^2-1})^2} - \frac{y^2}{(\frac{1}{\sqrt{a^2-1}})^2} = 1 \text{이 되므로 쌍곡선이 된다.}$$

따라서 $a = 0$ 이면 원, $a = 1$ 또는 $a = -1$ 이면 포물선, $-1 < a < 0$ 또는 $0 < a < 1$ 이면 타원, $a > 1$ 또는 $a < -1$ 이면 쌍곡선이 된다.

【문제 4】 아래에 제시된 답안에서 ① - ⑤ 각 단계에 점수를 부여한다.

$A = 2, B = \sqrt{3}, C = 1, D = 0, E = 0, F = -8$ 이므로 ----- ① 주어진 식 이해

$$(C - A)\sin 2\theta + B\cos 2\theta = (1 - 2)\sin 2\theta + \sqrt{3}\cos 2\theta$$

가 되고, 따라서 이 식을 0이 되게 하는 θ 는 $\sqrt{3}\cos 2\theta = \sin 2\theta$ 를 만족한다. 따라서 $\tan 2\theta = \sqrt{3}$ 이고,

$-\frac{\pi}{4} < \theta \leq \frac{\pi}{4}$ 라고 가정하였으므로 $\theta = \frac{\pi}{6}$ 이고 $\cos \theta = \frac{\sqrt{3}}{2}, \sin \theta = \frac{1}{2}$ 이다. ----- ② $B' = 0$ 이 되는 θ 계산

지문의 계산식으로부터

$$A' = A\cos^2\theta + C\sin^2\theta + B\cos\theta\sin\theta \quad \text{--- ③ } A' \sim F' \text{ 계산식 발견}$$

$$B'/2 = (C - A)\sin\theta\cos\theta + (B/2)(\cos^2\theta - \sin^2\theta) = \frac{1}{2}\{(C - A)\sin 2\theta + B\cos 2\theta\}$$

$$C' = A\sin^2\theta + C\cos^2\theta - B\cos\theta\sin\theta$$

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계산을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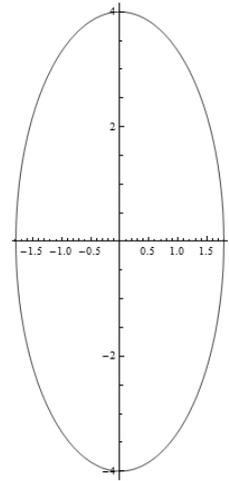
$$A' = \frac{5}{2}, B' = 0, C' = \frac{1}{2}, D' = 0, E' = 0, F' = -8 \text{ 이 된다. --- ④ } A' \sim F' \text{ 계산}$$

이로부터 타원의 방정식 $\frac{(x')^2}{(4/\sqrt{5})^2} + \frac{(y')^2}{4^2} = 1$ 를 얻는다.

이 타원의 초점은 $F(0, \pm \frac{8}{\sqrt{5}})$, 꼭짓점은 $(\pm \frac{4}{\sqrt{5}}, 0), (0, \pm 4)$

그리고 장축은 y 축과 일치한다.

이 타원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 ⑤ 타원방정식 표준형/그래프



【문제 5】 아래에 제시된 답안에서 ① - ⑤ 각 단계에 점수를 부여한다.

타원 $\frac{x^2}{a^2} + \frac{y^2}{b^2} = 1 (a > 0, b > 0)$ 의 면적은 두 곡선 $y = b\sqrt{1 - (\frac{x}{a})^2}$ 와 $y = -b\sqrt{1 - (\frac{x}{a})^2}$ 으로 둘러싸인 면적과 같다. 따라서 타원의 면적은

$$\int_{-a}^a 2b\sqrt{1 - (\frac{x}{a})^2} dx \quad \text{----- ① 피적분함수 & ② 적분범위}$$

로 주어지고 $t = \frac{x}{a}$ 로 치환하면 $dx = a dt$ 이므로 $\int_{-1}^1 2ab\sqrt{1 - t^2} dt$ 가 된다. --- ③ 치환으로 식 변환

반지름이 1인 반원의 면적을 구하는 적분식으로부터 $\int_{-1}^1 \sqrt{1 - t^2} dt = \frac{\pi}{2}$ 가 되므로 타원의 면적은

$$\int_{-1}^1 2ab\sqrt{1 - t^2} dt = 2ab \int_{-1}^1 \sqrt{1 - t^2} dt = ab\pi \text{이다. ----- ④ 적분으로 반원 면적 계산}$$

<문제 4>에서 $2x^2 + y^2 + \sqrt{3}xy - 8 = 0$ 는 회전변환에 의해 $\frac{(x')^2}{(4/\sqrt{5})^2} + \frac{(y')^2}{4^2} = 1$ 로 변환되고 회전변환은 면적

을 보존하므로 주어진 이차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은 $\frac{16\sqrt{5}}{5}\pi$ 이다. ----- ⑤ 이차곡선 면적 계산

2012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자연계열 학생답안

【문제 1】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전지의 용량이 $16kWh$ 일 때, 제시문 (나)에서와 같이 전하량과 몰수를 통해 리튬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계산을 쉽게 보이기 위해 단위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표현하자.

$$16kWh = 16000Wh = h \times \frac{3600s}{1h} = 16000Wh \cdot 3600s$$

이 때 전력은 1초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16000Wh \times 3600s/1s = 16000 \times 3600C \cdot V/s$ 이다. 리튬 전지의 전압이 $4V$ 로 일정하므로 전하량은 $Q = \frac{16000 \times 3600C \cdot V/s}{4V} \times s = 4 \times 36 \times 10^5 C$ 이다.

전자의 몰수는 $\frac{Q}{\text{Faraday 상수}}$ 로, $\frac{4 \times 36 \times 10^5 C}{96000C/mol} = 150mol$ 이다.

(몰수) = $\frac{(\text{질량})}{(\text{분자량})}$ 인데, 리튬의 분자량은 제시문에서 $7g/mol$ 이라 하였으므로 (질량) = (몰수) \times (분자량)에 의해 $150mol \times 7g/mol = 1050g$ 이다.

【문제 2】

현대 사회에서는 공해물질의 증가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무한성,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리튬전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량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2차 전지로,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있어서 유리해야 한다. 제시문의 <그림 1>에서는 리튬전지가 다른 2차전지들 보다 부피당 에너지 (Wh/L)와 질량당 에너지 (Wh/kg)가 모두 높아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리튬전지의 장점이다.

하지만 <그림 2>에서는 리튬전지의 경제성 (원/ Wh) 측면에서 다른 2차전지보다 비싸지만 제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제 상용화에 적합한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 측면에서는 질량당 전력량 (Wh/kg)이 크기 때문에 리튬전지가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가장 유리하다.

【문제 3】

$(ax+1)^2 = x^2 + y^2$, $(a^2-1)x^2 + 2ax - y^2 + 1 = 0$ 에서

- i) $a^2 - 1 = 0$, $a = \pm 1$ 일 때 $y^2 = \pm 2x + 1$ 인 포물선이 된다.
- ii) $a^2 - 1 = -1$, $a = 0$ 이면 $x^2 + y^2 = 1$ 인 원이 된다.
- iii) $-1 < a < 1$ 이고 $a \neq 0$ 이면, x^2 의 계수와 y^2 의 계수가 부호는 같고 값은 다르므로 타원이 된다.
- iv) $|a| > 1$ 이면 x^2 의 계수와 y^2 의 계수가 부호가 반대이고 값도 다르므로 쌍곡선이 된다.

【문제 4】

$$2x^2 + y^2 + \sqrt{3}xy - 8 = 0, \quad A=2, \quad B=\sqrt{3}, \quad C=1, \quad D=0, \quad E=0, \quad F=-8$$

$$(x \ y) \begin{pmatrix} 2 & \frac{\sqrt{3}}{2} \\ \frac{\sqrt{3}}{2} & 1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8 = 0 \text{으로 표현하고 제시문에 의해 고치면}$$

$$(x' \ y')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2 & \frac{\sqrt{3}}{2} \\ \frac{\sqrt{3}}{2} & 1 \end{pmatrix}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8 = 0$$

$$\begin{pmatrix} A' & B' \\ B' & C' \end{pmatrix} =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begin{pmatrix} 2 & \frac{\sqrt{3}}{2} \\ \frac{\sqrt{3}}{2} & 1 \end{pmatrix} \begin{pmatrix} \cos\theta & -\sin\theta \\ \sin\theta & \cos\theta \end{pmatrix}$$

$$= \begin{pmatrix} 2\cos^2\theta + \sin^2\theta + \sqrt{3}\sin\theta\cos\theta & -\sin\theta\cos\theta + \frac{\sqrt{3}}{2}(\cos^2\theta - \sin^2\theta) \\ -\sin\theta\cos\theta + \frac{\sqrt{3}}{2}(\cos^2\theta - \sin^2\theta) & 2\sin^2\theta + \cos^2\theta - \sqrt{3}\sin\theta\cos\theta \end{pmatrix}, \quad F' = -8$$

$$-\sin\theta\cos\theta + \frac{\sqrt{3}}{2}(\cos^2\theta - \sin^2\theta) = 0 \text{ 일때, } B' = 0 \text{이 된다. ((5)의 형태로 고쳐야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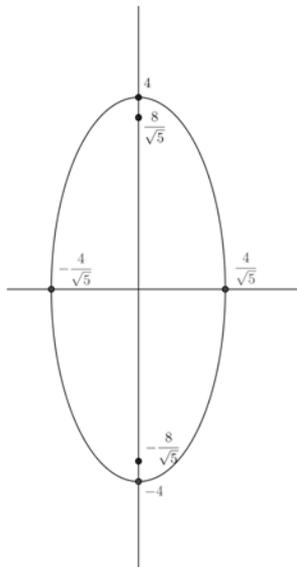
$$-\sin 2\theta + \sqrt{3}\cos 2\theta = 0$$

$$2\cos\left(2\theta + \frac{\pi}{6}\right) = 0 \text{ 일때 } 2\theta + \frac{\pi}{6} = \frac{\pi}{2} \quad \therefore \theta = \frac{\p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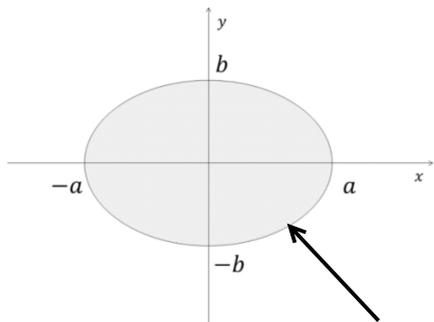
$$\begin{pmatrix} A' & B' \\ B' & C' \end{pmatrix} = \begin{pmatrix} 2 \times \frac{3}{4} + \frac{1}{4} + \sqrt{3} \times \frac{1}{2} \times \frac{\sqrt{3}}{2} & 0 \\ 0 & 2 \times \frac{1}{4} + \frac{3}{4} - \sqrt{3} \times \frac{1}{2} \times \frac{\sqrt{3}}{2} \end{pmatrix} = \begin{pmatrix} \frac{5}{2} & 0 \\ 0 & \frac{1}{2} \end{pmatrix}$$

$$(x' \ y') \begin{pmatrix} \frac{5}{2} & 0 \\ 0 & \frac{1}{2} \end{pmatrix} \begin{pmatrix} x' \\ y' \end{pmatrix} - 8 = 0$$

$$\frac{5}{2}x'^2 + \frac{1}{2}y'^2 - 8 = 0 \Rightarrow \frac{5}{16}x'^2 + \frac{1}{16}y'^2 = 1, \quad a = \frac{4}{\sqrt{5}}, \quad b = 4, \quad c = \frac{8}{\sqrt{5}}$$



【문제 5】



$$\frac{x^2}{a^2} + \frac{y^2}{b^2} = 1 \Rightarrow y = \frac{b}{a} \sqrt{a^2 - x^2}$$

$4 \int_0^a \frac{b}{a} \sqrt{a^2 - x^2} dx =$ 타원의 넓이

$x = a \sin \theta$ 치환하면 $dx = d\theta \cdot a \cos \theta$

$$4 \int_0^{\frac{\pi}{2}} \frac{b}{a} \sqrt{a^2 - a^2 \sin^2 \theta} d\theta$$

$$= 4 \int_0^{\frac{\pi}{2}} \frac{b}{a} \times a \cos \theta \times a \cos \theta d\theta = 4 \int_0^{\frac{\pi}{2}} ab \cos^2 \theta d\theta$$

$$= 4ab \int_0^{\frac{\pi}{2}} \frac{1 + \cos 2\theta}{2} d\theta = 4ab \left[\frac{1}{2} \theta + \frac{1}{4} \sin 2\theta \right]_0^{\frac{\pi}{2}} = 4ab \times \frac{\pi}{4} = ab\pi$$

〈문제 4〉의 결과를 이용하면 $2x^2 + y^2 + \sqrt{3}xy - 8 = 0$ 의 식은 $\frac{5}{2}x^2 + \frac{1}{2}y^2 = 8$ 의 식으로 회전변환에 의해 옮겨진다. 회전변환에 의해 옮겨진 도형의 면적은 옮겨지기 전 도형의 면적과 같고, 옮겨진 식은 타원이므로 $\frac{x^2}{a^2} + \frac{y^2}{b^2} = 1$ 일 때 면적은 $ab\pi$ 로 계산 할 수 있다. (위에서 증명)

$$\text{옮겨진 식} \Rightarrow \frac{x^2}{\frac{16}{5}} + \frac{y^2}{16} = 1$$

$$\therefore \text{구하고자하는 면적} = \frac{4}{\sqrt{5}} \times 4 \times \pi = \frac{16}{\sqrt{5}} \pi = \frac{16\sqrt{5}}{5} \pi$$

2011학년도 자연계열

- 논술문제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평가기준표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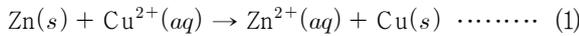
자연계열 논술문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제시문 1]은 <문제 1>, <문제 2>에 해당하며, [제시문 2]는 <문제 3>, <문제 4>, <문제 5>에 해당합니다. 각 제시문은 일반적인 과학, 수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잘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수식과 논리를 명확히 전개하여 답하시오.

제시문 1

(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체와 무생물체 모두에서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산화-환원반응이란 원자 등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수용액 내에서 아연(Zn)과 구리(Cu)를 이용한 산화-환원반응을 고려해 보자.



여기서, (s)는 해당 물질이 고체 상태, (aq)는 수용액 상태를 의미한다. 이 반응을 산화(전자를 잃는 것)가 관여한 반쪽 반응과 환원(전자를 얻는 것)이 관여한 반쪽 반응으로 나누어서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식(2)는 Zn 원자가 전자(e⁻) 2개를 잃어 양이온 Zn²⁺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고, 전자를 잃었으므로 산화반응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식(3)은 양이온 Cu²⁺가 전자 2개를 얻어서 Cu가 되었으므로 환원반응에 해당한다.

산화-환원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전자의 이동을 이용하여 전류를 얻는 장치를 화학전지라 한다. 화학전지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반응은 항상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즉, 산화전극(음극)에서는 식(2)와 같은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환원전극(양극)에서는 식(3)과 같은 환원반응이 일어나므로, 두 전극을 전선으로 연결하면 산화전극(음극)에서 환원전극(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전선을 통해 산화전극에서 전자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전지전위(ε_{전지}) 또는 기전력이라고 하며, 단위는 볼트(V)이다. 전지전위(ε_{전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psilon_{\text{전지}} = \epsilon_{\text{전지}}^{\circ} - \frac{0.0591}{n} \times \log_{10}(Q)$$

여기서, 표준전지전위(ε_{전지}^o)는 표준상태(25℃, 1기압, 모든 수용액의 농도는 1M)에서의 전지전위로서 환원전극과 산화전극의 표준환원전위의 차이로부터 구할 수 있다. 즉, ε_{전지}^o = ε_{환원전극}^o - ε_{산화전극}^o 이다. n은 산화-환원반응식에 관여한 전자의 수이다. 그리고 화학반응식이 A(s) + bB(aq) → cC(aq) + D(s)인 경우 반응지수 Q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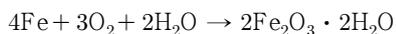
$$Q = \frac{[C]^c}{[B]^b}$$

위 반응식에서 b, c는 B, C의 반응계수이고 [B], [C]는 해당 물질의 초기 농도이다.

예를 들면, 식(1)에서 Cu²⁺와 Zn²⁺의 반응계수는 모두 1이며, 만약 Zn²⁺의 농도가 Cu²⁺의 100배라면 Q = 100이다. 그리고 산화전극(Zn)에서의 표준환원전위 ε_{산화전극}^o는 -0.76 V이고, 환원전극(Cu)에서의 표준환원전위 ε_{환원전극}^o는 0.34 V이므로, 표준전지전위(ε_{전지}^o)는 ε_{전지}^o = 0.34 - (-0.76) = 1.10 (V)가 된다. 마지막으로 식(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산화-환원반응에 이동한 전자의 수(n)는 2이므로 전지전위(ε_{전지})는

$$\epsilon_{\text{전지}} = 1.10 - \frac{0.0591}{2} \times 2 = 1.0409 \text{ (V) 이다.}$$

(나) 화학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산화-환원반응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반응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산화’라는 말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을 만들 때 사용되었고, ‘환원’은 산화물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원소를 만들 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 노출된 철이 부식되는 과정을 살펴보자(철이 부식되면 철의 강도가 급격히 약해진다). 부식과정에서 철은 다음과 같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이 된다.



이 반응을 산화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는 철이 대기 중의 산소에 노출되면 산소에 비해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전자를 산소에 잃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 산화철이라는 새로운 분자로 변형되는 데에 기인한다. 결국 철의 입장에서는 산화반응이 되고, 산소의 입장에서는 환원반응이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또는 같은 의미로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반응이라 하고, 그 반대를 환원반응이라 한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산화-환원반응의 몇 가지 예이다. 껍질을 깬 과일을 공기 중에 일정 시간 놓아두면 갈색으로 변한다. 이는 과일이 껍질에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다. 은(Ag)은 다른 물질에 비해 산화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므로 구리(Cu) 반지에 은도금을 하면 반지의 표면에서 전자의 이동, 즉 공기와의 결합으로 인한 부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은과 구리 사이에도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반지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은도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하게 된다. 환원전극에 은 조각을 연결하고, 산화전극에는 구리반지를 연결하여 은이 은이 녹아 있는 수용액에 담가 두어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러면 은 조각 표면에서는 산화반응에 의해 은이온이 수용액에 녹아들고, 반지의 표면에서는 환원반응이 일어나 구리반지에 은이 도금된다.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만드는 차 가운데, 산화차는 산화반응을 통해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반응이 최적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일정시간 동안 습도가 높고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차잎이 산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높이기 위해 작은 크기로 잘게 잘라 놓아야 한다. 산화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차잎 내의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으로 변하게 된다. 대표적인 산화차로는 홍차가 있다. 그 외의 산화-환원반응의 예로, 표백제 등과 같이 특정 색깔을 띠게 하는 물질에서 전자들을 제거하여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정용 액화천연가스가 연소하면서 많은 열과 빛을 발산하는 것, 그리고 불꽃놀이에서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여 엄청난 양의 빛을 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문제 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산화-환원반응을 통해서 화학전지를 구성하였을 때, 전지 전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기술하시오.

- 산화-환원반응식: $3\text{Mg}(s) + 2\text{Al}^{3+}(aq) \rightarrow 3\text{Mg}^{2+}(aq) + 2\text{Al}(s)$
- 표준환원전위: $E^\circ_{(\text{산화전극})} = -2.37 \text{ V}$, $E^\circ_{(\text{환원전극})} = -1.66 \text{ V}$
- 반응물과 생성물의 초기농도: $[\text{Al}^{3+}] = 1 \text{ M}$, $[\text{Mg}^{2+}] = 0.1 \text{ M}$

【문제 2】

철판을 잘라서 어떤 기구를 조립했다고 하자. 이 기구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산화-환원반응의 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제시문 2

(가) 큰 자연수를 나타낼 때, 어떤 수의 거듭제곱을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0400000은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5개의 0이 나타나므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30400000 = 304 \times 10^5$ 이다. 다른 경우로 29282는 11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29282 = 2 \times 11^4$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연수 100의 팩토리얼, 즉 $100! = 100 \times 99 \times 98 \times \cdots \times 2 \times 1$ 을 계산하여 십진법 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의 개수를 구하여 보자. 1에서 100까지의 수 각각을 소인수분해할 때, 소인수 5는 5의 배수마다 한 번씩 나오고, 또 5^2 의 배수마다 한 번씩 더 나오므로, 100!의 소인수분해에 나타나는 2의 지수를 p , 5의 지수를 q 라고 하면, $q = \left[\frac{100}{5} \right] + \left[\frac{100}{25} \right] = 20 + 4 = 24$ 이고, $p > q$ 이다. (이 식에서 기호 $[x]$ 는 x 이하의 정수 중 가장 큰 것을 뜻한다.) 따라서 100!의 약수 중에서 10의 거듭제곱 꼴로서 지수가 가장 큰 것은 $10^q = 10^{24}$ 이고, 100!의 십진법 수 표현에서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은 24개이다.

(나) 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12진법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12진법으로 표현한 네 자리 수 $abcd_{(12)}$ 는 십진법 수로 $abcd_{(12)} = a \times 12^3 + b \times 12^2 + c \times 12 + d$ 와 같이 계산된다. 어떤 자연수를 12진법 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12^r 꼴로서 지수 r 이 가장 큰 것을 찾아야 한다.

이제, $100! = 100 \times 99 \times 98 \times \cdots \times 2 \times 1$ 을 12진법 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의 개수를 구해 보자. $12 = 2^2 \times 3$ 이므로, 100!의 소인수분해에 나타나는 2의 지수 p , 3의 지수 q 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p = \left[\frac{100}{2} \right] + \left[\frac{100}{4} \right] + \left[\frac{100}{8} \right] + \left[\frac{100}{16} \right] + \left[\frac{100}{32} \right] + \left[\frac{100}{64} \right] = 50 + 25 + 12 + 6 + 3 + 1 = 97$$

$$q = \left[\frac{100}{3} \right] + \left[\frac{100}{9} \right] + \left[\frac{100}{27} \right] + \left[\frac{100}{81} \right] = 33 + 11 + 3 + 1 = 48$$

따라서 100!의 약수 중에서 12의 거듭제곱 꼴로서 지수가 가장 큰 것은 12^{48} 이고, 100!의 12진법 표현에서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은 48개이다.

(다) 0 이상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 ... 등을 사용하는 팩토리얼 진법이 있다. 팩토리얼 진법의 n 자리 수 $(a_n a_{n-1} \cdots a_2 a_1)_{(1)}$ 는 십진법 수로 $(a_n a_{n-1} \cdots a_2 a_1)_{(1)} = \sum_{k=1}^n a_k \times k!$ 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n!$ 의 자리의 수 a_n 은 1, 2, ..., n 중 하나이고, $k < n$ 이면 $k!$ 의 자리의 수 a_k 는 0, 1, 2, ..., k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1320_{(1)} = 1 \times 4! + 3 \times 3! + 2 \times 2! + 0 \times 1! = 24 + 18 + 4 = 46$ 을 나타낸다. 그리고 팩토리얼 진법으로 표현한 네 자리 수 가운데 가장 큰 자연수는

$4321_{(1)} = 4 \times 4! + 3 \times 3! + 2 \times 2! + 1 \times 1! = 96 + 18 + 4 + 1 = 119$ 이다. 팩토리얼 진법에서 10!의 자리 이상은 그 자리의 수가 10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10, 11, 12, ...를 다른 기호, 예를 들어 알파벳 A, B, C, ... 등으로 나타내어 $BA070000010_{(1)} = 11 \times 11! + 10 \times 10! + 7 \times 8! + 1 \times 2!$ 과 같이 표현한다. 하지만 자리가 높아질수록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수들을 나타낼 기호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자연수에 대한 팩토리얼 진법 표현은 유일하다. 이 사실은 팩토리얼 진법으로 표현된 n 자리 수 P 는

n 이 아닌 다른 개수의 자리들로는 표현할 수 없음을 보이고, 이후 P 가 n 자리의 다른 팩토리얼 진법 표현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김을 보임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문제 3】

팩토리얼 진법으로 표현한 수 $10120_{(1)}$ 을 십진법 수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그 수의 팩토리얼을 계산하여 30진법 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의 개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문제 4】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sum_{k=1}^n k \times k! = (n+1)! - 1$$

【문제 5】

어떤 자연수 P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팩토리얼 진법 표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P = (a_n a_{n-1} \cdots a_2 a_1)_{(1)} = \sum_{k=1}^n a_k \times k! \quad \cdots \cdots (1)$$

$$P = (b_n b_{n-1} \cdots b_2 b_1)_{(1)} = \sum_{k=1}^n b_k \times k! \quad \cdots \cdots (2)$$

그러면 (1)과 (2)의 두 표현에서 같은 자리의 수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자리를 $m!$ 의 자리라고 하자. 즉, $a_m \neq b_m$ 이고, $k > m$ 인 k 가 있다면 $a_k = b_k$ 이다. 이 사실과 <문제 4>에서 증명한 식을 이용하여, (1)의 가장 오른쪽 변과 (2)의 가장 오른쪽 변의 차가 0이 되지 않는 모순이 있음을 보이시오.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자연계열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 의도

본교의 2011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여 그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1]에 대해서는 산화-환원반응의 정의와 이것을 이용한 화학전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현상에 산화-환원반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주어져 있다. [제시문 2]에 대해서는 자연수를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때 그 지수를 찾는 방법과 팩토리얼을 이용하여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주어져 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수학적 기본개념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본 논술고사의 출제의도이다.

문제해설

【문제 1 풀이】

화학전지에서 표준상태가 아닌 경우, 전지의 전위(기전력)는 온도, 기체의 부분 압력, 혼합물의 농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산화-환원반응식, 표준환원전위, 혼합물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네른스트 식(Nernst equation)을 이용하여 전지의 전위를 구하면 된다.

산화-환원반응식($3\text{Mg} + 2\text{Al}^{3+} \rightarrow 3\text{Mg}^{2+} + 2\text{Al}$)으로부터

음극의 산화반응($3\text{Mg} \rightarrow 3\text{Mg}^{2+} + 6e^-$)과 양극의 환원반응($2\text{Al}^{3+} + 6e^- \rightarrow 2\text{Al}$)식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수(n)는 6이다.

표준전지전위($\varepsilon_{\text{전지}}^{\circ}$)는 환원전극과 산화전극의 표준환원전위의 차이로부터 구할 수 있다.

$\varepsilon_{\text{환원전극}}^{\circ} = -1.66 \text{ V}$ 이고 $\varepsilon_{\text{산화전극}}^{\circ} = -2.37 \text{ V}$ 이므로, $\varepsilon_{\text{전지}}^{\circ} = \varepsilon_{\text{환원전극}}^{\circ} - \varepsilon_{\text{산화전극}}^{\circ}$ 에 대입하면,

$\varepsilon_{\text{전지}}^{\circ} = -1.66 - (-2.37) = 0.71 \text{ (V)}$ 이다.

산화-환원반응식으로부터 반응물인 Al^{3+} 의 초기농도는 1M , 반응계수 2이고

생성물인 Mg^{2+} 의 초기농도는 0.1M , 반응계수는 3이므로

반응지수(Q)는 $\frac{(0.1)^3}{1^2} = 10^{-3}$ 이다.

최종적으로 네른스트 식(Nernst equation), $\varepsilon_{\text{전지}} = \varepsilon_{\text{전지}}^{\circ} - \frac{0.0591}{n} \times \log_{10}(Q)$ 에서 전지전위($\varepsilon_{\text{전지}}$)를 구하면,

$\varepsilon_{\text{전지}} = 0.71 - \frac{0.0591}{6} \times \log_{10}(10^{-3}) = 0.73955 \text{ (V)}$ 이다.

【문제 2 풀이】

[제시문 1]에서 언급한 산화-환원반응의 예들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음으로써 산화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철제기구에서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 된다.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은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면 된다. 그 원리는 사과껍질이 산소와 사과 내부와의 접촉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 내부가 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기가 철에 직접 닿지 않도록 페인트나 도료를 칠하는 것이다. 그리고 칠해진 페인트나 도료가 철의 산화를 유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료가 철을 산화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 방법들 중 하나는 철보다 산화되는 정도가 작은 금속으로 도금하거나 이들 성분이 있는 물질로 코팅하는 것이다. 또한, 기구를 습도가 낮은 곳에 놓아 사용하거나 제습기 또는 제습제를 사용하여 습도를 낮추어 산화반응이 쉽게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공기 중의 높은 습도는 산화 반응을 빨리 진행하게 한다. 그리고 철제기구가 산소와 같은 철의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은 곳에 놓아 사용한다. 왜냐하면 산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산화 반응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철에 전류를 흘려, 철이 산화반응으로 잃게 되는 전자의 양만큼을 지속적으로 다시 철에 공급하는 것도 철이 산화될 기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그네슘과 같은 산화 가능성이 큰 금속을, 전선을 이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철제 기구에 연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 3 풀이】

$10120_{(1)} = 1 \times 5! + 1 \times 3! + 2 \times 2! = 120 + 6 + 4 = 130$ 이다. 이 수의 팩토리얼, 즉 $130!$ 을 계산하여 30진법 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30!$ 의 약수 중에서 30의 거듭제곱 꼴로서 지수가 가장 큰 것을 찾아야 한다.

$30 = 2 \times 3 \times 5$ 이므로 $130! = 130 \times 129 \times 128 \times \dots \times 2 \times 1$ 의 소인수분해에 나타나는 2의 지수를 p , 3의 지수를 q , 5의 지수를 r 를 찾으면, $r = \left[\frac{130}{5} \right] + \left[\frac{130}{25} \right] + \left[\frac{130}{125} \right] = 26 + 5 + 1 = 32$ 이고 $p > q > r$ 이다.

따라서 $130!$ 의 약수 중에서 30의 거듭제곱 꼴로서 지수가 가장 큰 것은 $30^r = 30^{32}$ 이다. 그러므로 $10120_{(1)}! = 130!$ 을 30진법 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은 32개이다.

【문제 4 풀이】

$n = 1$ 일 때, $\sum_{k=1}^1 k \times k! = 1 \times 1! = 1$ 이고, $(1+1)! - 1 = 2 - 1 = 1$ 이므로, 식이 성립한다.

$n = j$ 일 때, 식 $\sum_{k=1}^j k \times k! = (j+1)! - 1$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begin{aligned} \sum_{k=1}^{j+1} k \times k! &= (j+1) \times (j+1)! + \sum_{k=1}^j k \times k! \\ &= (j+1) \times (j+1)! + (j+1)! - 1 \\ &= (j+2) \times (j+1)! - 1 \\ &= (j+2)! - 1 \end{aligned}$$

이므로, $n = j+1$ 일 때에도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식 $\sum_{k=1}^n k \times k! = (n+1)! - 1$ 가 성립한다.

【문제 5 풀이】

주어진 자연수 P 에 대하여 $n! \leq M < (n+1)!$ 을 만족하는 자연수 n 은 단 하나 존재하고, 이것이 P 의 팩토리얼 진법 표현의 자리의 개수가 되는 이유는 $(n-1)$ 개 이하의 자리로 표현되는 최대 자연수는 $\sum_{k=1}^{n-1} k \times k! = n! - 1 < n!$ 이고, $(n+1)$ 개 이상의 자리로 표현되는 최소 자연수는 $\overbrace{1000 \dots 0}^{n\text{개}}_{(1)} = (n+1)!$ 이기 때문이다. 만일 P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팩토리얼 진법 표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P = (a_n a_{n-1} \dots a_2 a_1)_{(1)} = \sum_{k=1}^n a_k \times k! \quad \dots \dots (1)$$

$$P = (b_n b_{n-1} \cdots b_2 b_1)_{(1)} = \sum_{k=1}^n b_k \times k! \quad \dots\dots\dots (2)$$

로 나타냈을 때, $a_k \neq b_k$ 인 k 가 $1, 2, \dots, n$ 중에 있을 것이고, 그 중 가장 큰 것을 m 이라고 하자.

식(1)에서 식(2)를 빼면 $0 = P - P = \sum_{k=1}^n a_k \times k! - \sum_{k=1}^n b_k \times k! = \sum_{k=1}^n (a_k - b_k) \times k!$ 이다. 여기서 (1)의 가장 오른쪽

변과 (2)의 가장 오른쪽 변의 차이를 나타내는 $\sum_{k=1}^n (a_k - b_k) \times k!$ 이 0이 아니면 모순이다.

$\sum_{k=1}^n (a_k - b_k) \times k!$ 에서, $k > m$ 인 k 가 있다면 $a_k - b_k = 0$ 이므로, $\sum_{k=1}^n (a_k - b_k) \times k! = \sum_{k=1}^m (a_k - b_k) \times k!$ 이다.

먼저, $m = 1$ 인 경우는 $\sum_{k=1}^m (a_k - b_k) \times k! = (a_1 - b_1) \times 1! \neq 0$ 이다.

$2 \leq m \leq n$ 인 경우에는 $\sum_{k=1}^m (a_k - b_k) \times k! = (a_m - b_m) \times m! + \sum_{k=1}^{m-1} (a_k - b_k) \times k!$ 와 같이 가장 높은 항과 나머지 항들의 합으로 분리하여 쓸 수 있다. 이 식에서, $(a_m - b_m)$ 는 0이 아닌 정수이므로, $|a_m - b_m| \geq 1$ 이다. 따라서 $|(a_m - b_m) \times m!| \geq m!$ 이다. 즉, 가장 높은 항 $(a_m - b_m) \times m!$ 의 절댓값은 $m!$ 이상이다. 그런데,

$\sum_{k=1}^{m-1} (a_k - b_k) \times k!$ 에서 $-k \leq a_k - b_k \leq k$ 이므로, <문제 4>에서 증명한 식을 이용하면 나머지 항들의 합

$\sum_{k=1}^{m-1} (a_k - b_k) \times k!$ 의 절댓값은 $\left| \sum_{k=1}^{m-1} (a_k - b_k) \times k! \right| \leq \sum_{k=1}^{m-1} k \times k! = m! - 1 < m!$ 임을 얻는다.

따라서 $(a_m - b_m) \times m!$ 과 $\sum_{k=1}^{m-1} (a_k - b_k) \times k!$ 의 합이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m = 1$ 인 경우와 $2 \leq m \leq n$ 인 경우 모두 (1)의 가장 오른쪽 변과 (2)의 가장 오른쪽 변의 차가 0이 되지 않아서 모순이다. 따라서 자연수 P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팩토리얼 진법 표현이 존재할 수 없다.

2011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자연계열 평가기준표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20	* 제시문에서 타당한 자료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수리적 풀이가 정확한가? *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문제2	20	
문제3	20	
문제4	20	
문제5	20	* 제시문에 근거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전개하였는가?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평가기준

【문제 1】

음극의 산화반응($3\text{Mg} \rightarrow 3\text{Mg}^{2+} + 6e^-$)과 양극의 환원반응($2\text{Al}^{2+} + 6e^- \rightarrow 2\text{Al}$)식을 구한다.

이 반응에 이동한 전자의 수(n)은 6이다. …………… 이동한 전자의 수(n)을 구한다 ①

표준전지전위($\epsilon_{\text{전지}}^{\circ}$)는 환원전극과 산화전극의 표준환원전위의 차이로부터 구할 수 있다.

$\epsilon_{\text{환원전극}}^{\circ} = -1.66 \text{ V}$ 이고 $\epsilon_{\text{산화전극}}^{\circ} = -2.37 \text{ V}$ 이므로, $\epsilon_{\text{전지}}^{\circ} = \epsilon_{\text{환원전극}}^{\circ} - \epsilon_{\text{산화전극}}^{\circ}$ 에 대입하면,

$\epsilon_{\text{전지}}^{\circ} = -1.66 - (-2.37) = 0.71 \text{ (V)}$ 이다. …………… 표준전지전위($\epsilon_{\text{전지}}^{\circ}$)를 구함 ②

산화-환원반응식으로부터 반응물인 Al^{3+} 의 초기농도는 1M , 반응계수 3이고, 생성물인 Mg^{3+} 의 초기농도는 0.1M , 반응계수는 2임.

그러므로, 반응지수(Q)는 $\frac{(0.1)^3}{1^2} = 10^{-3}$ 이다. …………… 반응지수(Q)를 구함 ③

최종적으로 전지전위($\epsilon_{\text{전지}}$)를 구하면,

$\epsilon_{\text{전지}} = 0.71 - \frac{0.0591}{6} \times \log_{10}(10^{-3}) = 0.73955 \text{ (V)}$ 이다. …………… 전지전위($\epsilon_{\text{전지}}$)를 구함 ④

【문제 2】

산화-환원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철이 산화되는 데에 필요한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거나 전자의 손실을 줄이면 된다. 그리고 습도나 산소의 농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의 통제 또한 하나의 억제 방법이 된다.

- ①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은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막으면 된다. 그 원리는 사과껍질이 있으면 산소 등의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사과 내부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과 내부가 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기가 철에 직접 닿지 않도록 페인트나 도료를 칠하는 것이다.
- ② 그리고 칠해진 페인트나 도료가 철의 산화를 유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료가 철을 산화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 방법들 중 하나는 철보다 산화되는 정도가 작은 금속으로 도금하거나 이들 성분이 있는 물질로 코팅하는 것이다.

- ③ 또한, 기구를 습도가 낮은 곳에 놓아 사용하거나 제습기 또는 제습제를 사용하여 습도를 낮추어 산화반응이 쉽게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공기 중의 높은 습도는 산화 반응을 빨리 진행하게 한다.
- ④ 그리고 철제기구가 산소와 같은 철의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은 곳에 놓아 사용한다. 왜냐하면 산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산화 반응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 ⑤ 철을 음의 전극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대신 제3의 물질로부터 전자를 방출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철이 산화될 기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 마그네슘과 같은 산화 가능성이 큰 금속을, 전선을 이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철제 기구에 연결한다. 지속적으로 철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화가 진행되면서 마그네슘 산화전극이 녹아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마그네슘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문제 3】

$10120_{(10)} = 1 \times 5! + 1 \times 3! + 2 \times 2! = 120 + 6 + 4 = 130$ 이다. $10120_{(10)}$ 를 십진법 수로 나타냄 ①
 $30 = 2 \times 3 \times 5$ 이므로, $130!$ 의 소인수분해에 나타나는 2, 3, 5 각각의 지수를 p, q, r 이라 한다.
 30 을 인수분해 ②
 $p > q > r$ r 에 의해 30 의 거듭제곱 횟수가 결정됨 ③
 $r = \left\lfloor \frac{130}{5} \right\rfloor + \left\lfloor \frac{130}{25} \right\rfloor + \left\lfloor \frac{130}{125} \right\rfloor = 26 + 5 + 1 = 32$ 5의 지수 r 을 구함 ④
 따라서 $130!$ 의 약수 중에서 30 의 거듭제곱 꼴로서 지수가 가장 큰 것은 $30^r = 30^{32}$ 이다.
 그러므로 $10120_{(10)}! = 130!$ 을 30진법 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은 32개이다.
 0의 개수를 말함 ⑤

【문제 4】

$n = 1$ 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 = j$ 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 = j + 1$ 일 때에도 식이 성립함을 보인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함 ①
 $n = 1$ 일 때, $\sum_{k=1}^1 k \times k! = 1 \times 1! = 1$ 이고, $(1+1)! - 1 = 2 - 1 = 1$ 이므로, 식이 성립한다.
 $n = 1$ 일 때 성립함을 보임 ②
 $n = j$ 일 때, 식 $\sum_{k=1}^j k \times k! = (j+1)! - 1$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 = j$ 일 때의 가정을 세움 ③
 $\sum_{k=1}^{j+1} k \times k! = (j+1) \times (j+1)! + \sum_{k=1}^j k \times k!$ $n = j + 1$ 인 식에 $n = j$ 일 때의 가정을 대입 ④
 $= (j+1) \times (j+1)! + (j+1)! - 1$
 $= (j+2) \times (j+1)! - 1$
 $= (j+2)! - 1$ 이므로 $n = j + 1$ 일 때 식이 성립함을 보임 ⑤
 $n = j + 1$ 일 때, 식 $\sum_{k=1}^{j+1} k \times k! = (j+2)! - 1$ 이 성립한다.

【문제 5】

(1)의 식에서 (2)의 식을 빼면 $0 = P - P = \sum_{k=1}^n a_k \times k! - \sum_{k=1}^n b_k \times k! = \sum_{k=1}^n (a_k - b_k) \times k!$ 이고, 여기에서

(1)의 가장 오른쪽 변과 (2)의 가장 오른쪽 변의 차이를 나타내는 $\sum_{k=1}^n (a_k - b_k) \times k!$ 이 0이 아니면 모순이다.

$k > m$ 인 k 가 있다면 $a_k - b_k = 0$ 이므로, $\sum_{k=1}^n (a_k - b_k) \times k! = \sum_{k=1}^m (a_k - b_k) \times k!$ 이다.

..... m 에 대한 사실을 이용함 ①

먼저, $m = 1$ 인 경우는 $\sum_{k=1}^m (a_k - b_k) \times k! = (a_1 - b_1) \times 1! \neq 0$ 이다. $m = 1$ 인 경우 확인 ②

$2 \leq m \leq n$ 인 경우에는 $\sum_{k=1}^m (a_k - b_k) \times k! = (a_m - b_m) \times m! + \sum_{k=1}^{m-1} (a_k - b_k) \times k!$

..... 가장 높은 항과 나머지 항들의 합으로 분리함 ③

이 식에서, $(a_m - b_m)$ 는 0이 아닌 정수이므로, $|a_m - b_m| \geq 1$ 이고, 따라서 $|(a_m - b_m) \times m!| \geq m!$ 이다.

..... 가장 높은 항 $(a_m - b_m) \times m!$ 의 절댓값은 $m!$ 이상임을 보임 ④

그런데, $\sum_{k=1}^{m-1} (a_k - b_k) \times k!$ 에서 $-k \leq a_k - b_k \leq k$ 이므로, <문제 4>에서 증명한 식을 이용하면

$$\left| \sum_{k=1}^{m-1} (a_k - b_k) \times k! \right| \leq \sum_{k=1}^{m-1} k \times k! = m! - 1 < m! \text{ 임을 얻는다.}$$

..... 나머지 항들의 합 $\sum_{k=1}^{m-1} (a_k - b_k) \times k!$ 의 절댓값은 $m!$ 미만임을 보임 ⑤

따라서 $(a_m - b_m) \times m!$ 과 $\sum_{k=1}^{m-1} (a_k - b_k) \times k!$ 의 합이 0이 될 수가 없다.

